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19 WINTER VOL. 109



+ THEME MECENAT

메세나대상
스무해의 영광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기업으로 가는 길

하나. 문화로 인사합시다.

법인세 부담도 낮추고,
기업의 이미지도 살리는 1석 2조의 방법입니다.

문화접대비란?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강연 등의 입장권이나 도서 및 간행물, 음반, 영화,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해 접대에 사용하실 경우, 사용액만큼 해당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

문화접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둘. 문화에 기부 하세요

기부도 하고, 법인세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기부란?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협회 회원은 누구나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에 기부하는 것은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CONTENTS

문화강국 향한 기업과 예술의 빛나는 동행

테마기획

기획코너

스무해의
영광



현장 리포트

예술 후원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다



영광의 메세나

제20회 메세나대상
영예의 주역



메세나 통권 109호
발행일 2019년 12월 17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작품_〈메세나〉 등 캐스팅 위에 크롬 니켈 도금·호두나무 좌대, 20.5x6x6cm, 2019년

2019 메세나대상 트로피는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의 건축적 디자인에 영감을 받은 구조물 시리즈 중 하나로, 진보적 미래를 향해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작가 이불의 작품으로 6개 기업과 기업인에게 헌정되었다.

작가_이불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작가는 뉴욕 현대미술관(1997년), 뉴욕 뉴 뮤지엄(2002년), 파리 까르티에 현대미술재단(2007년), 도쿄 모리 미술관(2012년), 무담 룩셈부르크-그랑 뒤 장 현대미술관(2013년), 런던 헤이워드 미술관(2018년)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1998년 〈휴고 보스 프라이즈〉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1999년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비롯해 2012년 〈김세중 조각상〉, 2014년 〈제10회 광주 비엔날레 눈 예술상〉, 2016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2019년 〈호암상 예술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의 조각예술을 이끌어왔다.

계간 〈메세나〉는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메세나 포커스

-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멀리 그리고 오래
메트라이프크리아재단 송영록 이사장
- 20 **찾아슈**
예술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후배 예술인 멘토링 메세나
- 22 **해외는 지금**
국민화가와 국가 문화경쟁력
무민 캐릭터로 본 국가브랜드 디자인의 힘
- 26 **메세나 스토리**
예술 품은 금융산업
문화예술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시중은행
- 28 **메세나 아틀리에**
삶; 세 가지 빛
'빛의 화가' 우제길
- 32 **엘리버드 페스티벌**
선율에 실린 춘풍
국제음악축제 〈프라하의 봄〉



문화 CSR

- 34 **메세나 가까이 보기**
“왜, 날 키워요?” 식물이 나에게 물었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KIAF
(Art Collaboration 드림그림X파도식물)
동심 춤추는 환상 동화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키즈오페라'
공연 전문가와 펼치는 무대의 꿈
두산 청소년 아트스쿨
'무대미술, 연기연출, 희곡 창작 워크숍'
군 생활 자아성숙의 기회로
현대자동차 '2019 군인의 품격'
기발한 아이디어 속 착한 메시지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서울디자인페스티벌
(Art Collaboration 드림그림X마음스튜디오)
- 40 **회원사 뉴스**
- 44 **기업-예술 파트너십**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
농촌 학교에 올려 퍼진 사랑의 선율
동서식품 '제12회 맥심 사랑의 향기' 개최
롯데월드에서 올려 퍼지는
천사들의 하모니
롯데월드&쇼콰이어그룹 하모니아즈
국내 최대 규모
〈2019 국악관현악축제〉
크라운해태홀딩스&한국음악협회
'2019 문화로 인사합니다'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사업
한국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함께하는 메세나

- 48 **협회 소식**
- 52 **예술 살롱**
올해의 작가상 2019 &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신년음악회
- 54 **문화 캘린더**
- 56 **회원사 소개**




문화강국 향한

기업과 예술의

빛나는 동행

기획코너

스무해의 영광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에 전하는
감사와 존경의 무대,
'2019 한국메세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예술 지원 생태계 구축에 힘쓴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올 한 해의 한국 메세나 성과들을 되돌아본다.

현장 리포트 예술 후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다
2019 한국메세나대회 현장 스케치

영광의 메세나 제20회 메세나대상
영예의 주역

Mecenat Awards
20th Anniversary

스무해의 영광

2019년 메세나대상



메세나대상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인, 기업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두를 위한 축제다. 매년 시상식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1999년을 시작으로 올해 20회를 맞은 메세나대상은 그간 수많은 기업 및 예술계와 함께해 온 만큼 대한민국 예술발전의 이정표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과 예술계가 한자리에 모여 예술 후원의 정신을 되새기고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메세나대상 스무해의 기억을 되짚어본다.



역대 메세나 대상 트로피는 최만린, 박석원, 신상호, 이불 등 국내 최고 작가들의 작품이다.



창설(1999)

삼성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솔문화재단
레더데코 씬지
국민은행
금복문화재단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승격(2001)

교보생명보험
한국도자기
대상
제일화재해상보험
포스코
동주

'01

금호문화재단
서울시지하철공사
CJ
세종
르노삼성자동차
엑큐리스

'02

LG연암문화재단
제일모직
세아제강
필코리아리미티드
이건산업
공간그룹

'03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르노삼성자동차
대항병원
한화
컬처마케팅그룹

'04

'메세나인상', 'Arts & Business' 상 추가(2005)

포스코
파라다이스문화재단
남아섬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이금룡 넷피아 회장
우림건설
나무커뮤니케이션
아산문화재단&베데스다



한화석유화학
신한은행
한국토지공사
조돈영 르노삼성자동차 전무
한광호 한빛문화재단 이사장
부산지방노동청
소니코리아

'06

현대중공업
KT
한국토지공사
대한생명
LG생활건강&서울국악관현악단

'07

국민은행
CJ
최충경 경남스틸 사장
홈플러스
한국철도공사
삼립식품&하트하트재단

'08

메세나대상 10주년(2009)

아시아나항공
우리금융그룹
박연호 부산지축은행 회장
LG화학
인천국제공항공사



CJ문화재단
KT&G
정승일 세일ENS 회장
한국전력공사
CK치과병원
삼양감속기&극단영태
스타키코리아&서울튜티앙상블

'10

대한생명
하나금융지주
김희근 박산엔지니어링 회장
두산연강재단
신한카드
성도GL&사단법인 헤이리



현대자동차그룹
아모레퍼시픽
구자훈 LG문화재단 이사장
경남은행
종근당
태광산업&삼일로창고극장

'12

GS칼텍스재단
크라온-해태제과
김경근 우진건설 회장
금호터미널
샘표식품
KT렌탈&극단 버섯

'13

대원문화재단
IBK기업은행
박영주 이관산업 회장
KT
엠엘씨월드카고&캔파운데이션

'14

KT&G
네이버문화재단
김정수 JS&F 회장
백산문화재단
올림푸스한국
한국임웨이&한국조각가협회 성남지부

'15

현대차 정몽구 재단
종외학술복지재단
윤영달 크리온해태제과 회장
케이옥션
대창스틸&서울모테트음악재단

'16

CJ문화재단
한성자동차
이웅열 코오롱 회장
한국남동발전
조광요턴&솔오페라단

'17

동서식품
LG생활건강
백정호 동성코퍼레이션 회장
에이치케이
오성정보통신&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18

메세나대상 20주년(2019)

부산은행
한화생명
조용래 맥키스컴퍼니 회장
한미약품
돌실나이&은세계씨어터컴퍼니



102/16

수 상 기 업 102개사 / 메 세 나 인 16명



현장 리포트

예술 후원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다

2019 한국메세나대회 현장 스케치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마중물이 되는 '2019 한국메세나대회'가 11월 20일 조선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9년부터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 기업인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에는 메세나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며 메세나대상 20주년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겨울의 날씨에도 350명의 기업인과 예술인,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내 뜨거운 열기와 환호로 현장을 채웠다.

다시 보는

메세나 가치와 정신

‘2019 한국메세나대회’는 메세나대상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메세나의 의미를 짚어보는 김상근 교수(연세대 신과대학)의 인문학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당신의 행동에서부터 우러나게 하십시오. 이런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지 묻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마에케나스가 한 조언이다. 옥타비아누스를 도와 로마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마에케나스는 요즘으로 치면 문화부 장관 같은 인물이었다. 김상근 교수는 “문화예술인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로마의 문화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마에케나스 정신이 메세나 정신으로 이어졌다. 메세나 정신은 예술 후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라의 품격 높이는 가장 이상적인 활동

이날 행사에는 국내 기업인과 예술인,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했다.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 경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 지원을 계속해 온 기업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며 “메세나 활동은 기업 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풍요롭

게 만들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메세나 활동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반석에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부산은행,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를 20년간 단독후원하고 있는 한화생명보험, 2007년부터 지역민을 위한 무료음악회를 진행해온 맥스컴퍼니 조종래 회장, 2003년 한국 최초의 사진미술관인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한 한미약품, 아름다운 상생을 실천하는 돌실나이와 은세계씨어터컴퍼니 등 수상기업 및 기업인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김정배 실장은 축사를 통해 “메세나 지원총액은 2,040억에 달해 전년 대비 5%나 늘어난 수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후원금액에 비례해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공동주최사인 매일경제신문 손현덕 대표이사의 축사도 이어졌다. “미국의 유명한 추상화가 잭슨 폴락이 대작가로 성장한 배경에는 구겐하임미술관이라는 훌륭한 메세나 기관이 있었다. 국격을 좌우하는 것은 문화이며 예술은 문화의 밑천이라고 생각한다”며 밑천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준 메세나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매경미디어그룹도 메세나 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2006년 이래 총 1,500여 커플 탄생

뒤이어 기업과 예술단체 간 파트너십의 한 해 결산이라 할 수 있는 ‘2019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진행됐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념패는 192개의 커플 가운데 올해의 베스트 커플로 선정된 2커플에게 대표로 전달되었다. 대기업 부문에서는 종근당과 아트스페이스 휴가 선정됐으며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서는 재단법인 노래의 섬과 예술무대 산이 각각 베스트 커플로 선정됐다.

노래의 섬 이계영 이사장은 “당연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됐다. 상의 영광은 지난 5년 동안 함께 해온 예술무대 산과 함께 하겠다”고 말해 변함없는 파트너십을 보여줬다. 예술무대 산의 조현산 대표 역시 “창작자들에게는 창작의 과정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과정이다”며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연장을 제공해준 노래의 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06년 사업이 출범된 이래 1,500여 커플이 본 사업에 참여했으며 750억 원이 예술계에 지원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192개 커플이 만나 모범적인 결연활동을 펼쳤으며 61억 원이 예술계에 전달되었다. 해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에 참여해서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 예술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예술인들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2개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 커플 명단



스페셜 오프닝 강연을 하는 연세대 김상근 교수





예술 후원의 고귀한 정신 깃든 스무 번째 메세나대상 시상식

이어서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제20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을 맞았다. 시상식에 앞서 신수정 심사위원장은 "기업인들이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제2의 모차르트, 베토벤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기업의 예술지원 활동에 힘입은 결과"라고 재차 강조하며 참석자 모두를 격려했다.

먼저, Art & Business상은 중소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진정성 있는 결연 사례로 손꼽히는 돌실나리와 은세계씨어터컴퍼니에게 돌아갔다. 돌실나리의 김남희 대표는 "대한민국에 좋은 문화유산을 남기는 한 점이 되고자 오랜 세월 노력했다. 앞으

로 더 좋은 일을 해서 대한민국에 꼭 좋은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은세계씨어터컴퍼니 이동준 대표는 "돌실나리는 10년째 변함없이 작은 극단을 서포트해주고 있다. 때로는 폐강도처럼 보일 때도 있었을 텐데 예술가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의상을 수상한 한미약품의 우종수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 상의 수상은 과거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미래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가슴에 새기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메세나인상은 대전 기업인 맥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이 수상했다. 메세나인상은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유일한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상이다. 조웅래 회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한 활동이었다. 꾸준히 10년 넘

게 하다 보니 오히려 기업활동에도 힘이 된다. 이번 수상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도 메세나 활동을 꾸준히 하면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문화공헌상은 한화생명보험이 수상했는데 상을 수상한 여승주 대표이사는 "메세나는 가슴으로의 사결정을 하는 정책이다"는 깊은 울림의 소감을 전했다.


제20회 메세나대상의 영예는 부산은행의 몫이었다. 부산은행은 1967년 창립 이래 다양한 예술분야를 지원해왔으며 특히 뮤지컬·영화·연극·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 예술 균형발전을 이뤄냈다. 부산은행 성동화 부행장은 "상생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메세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기업금융기관



으로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과 사회에 환원하는 아트뱅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적 설치미술가 이불 작가의 작품으로 제작된 트로피,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축하연주가 더해져 행사의 예술적 품격을 더욱 드높였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던 1999년 가을, 메세나대상 시상식이 처음 열렸다. 당시 IMF 위기 극복에 매진하면서도 우리 기업인들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에 주목했다. 지난 20년간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예술후원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메세나상이 수여됐다.

순수한 열정으로 예술을 후원한 기업들의 메세나 정신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제20회 메세나대상

영예의 주역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후원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이 모였다.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동참한 기업인과 예술가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6개 수상 기업이 단상에 올랐다. 참석자 모두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이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소감을 말하는 부산은행 성동화 부행장

대상 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24년 후원 포함,
연극·뮤지컬·무용·미술·클래식 등
다양한 예술분야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의 균형발전’ 견인차

BNK 부산은행

2019 메세나대상 ‘대상’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업 부산은행에게 돌아갔다. 1967년 창립 이래 예술후원, 교육사업, 사회복지,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은행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연극·뮤지컬·무용·미술·클래식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지원해 ‘예술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페스티벌인 ‘부산국제영화제’를 24년째 후원하고 있는 주역으로서 오늘날 부산 문화예술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한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부산은행은 차세대 청년작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학교,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메세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내 주요 3개 지점에 미술관을 설치해 다양한 기획전과 신진 작가의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2010년부터는 연주 단원 6명을 정식직원으로 채용, 실내악단을 창단해 예술인 고용창출까지 기여하는 등 독보적인 지역 메세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공헌상

한화생명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20년간 단독 후원,
한국 클래식 발전과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



한화생명보험 여승주 대표이사

메세나인상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

충남 대전 계족산 숲속음악회,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개최로 지역민 중심 에코힐링 실천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



한화생명

‘문화공헌상’은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를 2000년부터 20년간
단독 후원하며 클래식 음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화생명보
험에게 돌아갔다.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는 전국의 오케스트라와 국내외 저명 솔
리스트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연하는 국내 최대의 클래식 축제다.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1~4만 원 대의 저렴한 관람요금을 유지하
며, 클래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50만 명이 공연장을 찾는 계
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오케스트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해 역량
있는 지역 오케스트라를 발굴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술의전당 마티네 콘서트인 ‘한화생명과 함
께하는 11시 콘서트’를 후원해 예술의전당 대표 공연 브랜드로 자
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맥키스컴퍼니

충남 대전을 대표하는 소주 제조사인 맥키스컴퍼니(구.선양소주)
의 조웅래 회장은 2006년부터 지역민을 위한 계족산 황톳길을
조성하고 무료음악회를 진행하는 ‘에코힐링’을 실천한 공적을 인
정받아 ‘메세나인상’을 수상했다.

2004년 선양소주를 인수한 조웅래 회장은 지역민을 위한 예술·
문화나눔 활동이 공유가치 창출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지역민
대상 메세나 활동을 펼쳐나갔다. 계족산 임도를 개발해 14.5km에
달하는 황톳길을 조성, 15년간 관리·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는 계족산 숲속음악회장을 조성해 4월~10월 매주 토요일과 일요
일 ‘뽀뽀(fun fun)한 숲속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황톳길은 이제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됐
다. 이밖에도 학교, 교도소, 군부대 등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
아가는 힐링 음악회’를 개최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창의상 한미약품

한국 최초의 사진전문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개관 및 가현문화재단 설립 통해 16년간 사진 예술 다각 지원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



한미약품은 한국 사진 예술 발전을 위해 비영리재단인 가현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사진전문 미술관인 한미사진미술 관 개관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아 '창의상'을 수상했다. 한미약품은 시각매체로서의 사진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하던 2003년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해 국내외 사진작가를 발굴 하고 개인전, 단체전 등 400여 회의 전시를 개최·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사진 역사 아카이빙, 출판, 학술연구, 사진예술 교육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진 예술 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 연 1만 명이 방문하는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성장한 한 미사진미술관은 명실상부 한국 사진계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Arts & Business상 돌실나이 & 은세계씨어터컴퍼니

기업은 10여 년 동안 창작 연극·뮤지컬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 임직원을 위한 예술 강좌를 진행하는 등 양 사 간 돈독한 협력 유지



돌실나이 김남희 대표(좌), 은세계씨어터컴퍼니 이동준 대표(우)



'Arts & Business'상은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협력관계 유지 통해 중소기업과 예술단체 간 진정성 있는 결연 사례를 보여준 돌실나 이와 은세계씨어터컴퍼니에게 돌아갔다. 은세계씨어터컴퍼니 창단 초기인 2001년부터 지원해온 돌실나 이는 2008년부터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 예술단체를 적극적 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돌실나이의 지원에 힘입어 은세계씨어터 컴퍼니는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가, 10년 가까이 생명력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제작 기반의 안정을 찾은 은세계씨어터컴퍼니는 창작 활동뿐 아니라 '무지개빛 청개구리 연극교실' 등 사회 취약계 층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돌실나이 임직원 을 위한 예술 강좌, 고객 단체관람 및 백 스테이지 투어 등 프로그 램을 통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가고 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이사장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눔도 다르지 않다.
공감을 통한 나눔 실천은 곧 변화로 이어진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송영록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가 변해도 살아있는 문화요,
문화예술인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그가篤심 있게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다.



함께 멀리 그리고 오래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이사장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
송영록 인터뷰

 **MetLife**Foundation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2005년 설립 이래, 건강한 금융생활과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 있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금융포용·문화예술나눔·지역사회 나눔 등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 동행 하나

‘심표’와 ‘감성’ 찾기의 여정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여유’는 다른 세상 언어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유를 잃고 각박함이 사회를 정의하는 단어가 돼버렸다.

“살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경쟁 속에서 본질은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예요. 일상에 심표가 절실한 상황이지요.”

송영록 이사장은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심표’, 그것을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정서적 소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문화예술과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그가 문화예술 지원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단기적 나눔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힘을 키우는 지속적 나눔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게 된 것이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하 재단)은 오래전부터 금융 포용, 지역사회 나눔, 문화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가 그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세운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문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고 포용이라는 생각에서다.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정서적 교감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동시에 역량 있는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하기에는 우리는 진정성만 충만한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 누구나 함께 누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의 가치를 알기에 전문가와 손잡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 동행 들
생각을 현실로!

재단은 2019년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전환점을 맞는다. 프로그램은 심표와 힐링, 그리고 감동을 선물한다는 의미로 'The gift-선물'이라고 이름 짓고, 진행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역량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방법이다. 올해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와 국악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국악 퓨전밴드 'Aux' 두 단체가 선정됐다.

"나눔의 본질은 '자립'에 있다고 봅니다. 고기 낚는 법을 깨우치도록 돕는 것이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무대 세팅을 하고 어떻게 단원들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세밀하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푸는 방법을 그 분야 전문가에게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인 문화예술인은 공연만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지속할 수 있는 공연과 무대가 절실하다. 그러려면 또 중요한 것이 관객 동원이다. SNS 외에는 홍보할 여력이 없는 공연팀에게는 무리다.

"메트라이프생명 구성원들은 재단의 나눔 활동에 매년 수천 명이 참여합니다.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임직원이 문화예술적 감성을 함께 높이는 기회가 있다면 일거양득 아닐까요?"

실제로 임직원 가족과 일반인 모두에게 열려있던 공연은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준 높은 공연은 직원들의 애사심마저 채웠다. 특히, 장애인이 아닌 예술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 장애에 대한 편견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다른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은 '티켓 나눔'이다. 유명한 공연의 모든 좌석

예술의전당에서
티켓나눔으로 진행된
뮤지컬 <영웅>



을 구입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티켓 나눔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뮤지컬 '영웅'이었다. 전 좌석을 소외계층에 제공한다는 것이 대관 원칙이었다. 전국에서 1,800여 명이 모였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웃고 환호하고 감동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속에서 저도 오랜만에 울컥했다고 할까요. 그 공간에 가득한 희망이 보였어요. 함께의 가치가 크게 와닿은 하루였습니다."

그는 올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시너지가 발휘되는지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한다. 재단의 진정성과 협회의 시스템이 만들어 낸 시너지는 우리 사회에 여유를 더하는 에너지가 되지 않았을까.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의 공연 모습



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공헌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행 셋

지키고 나누는 사회적 책무

메트라이프는 Fortune(포춘, 전미(全美) 기업순위 발표로 저명한 미국 종합 경제지) 500 기업 중 43위에 선정된 글로벌 금융 그룹이다. 송영록 이사장은 한국법인 메트라이프생명의 대표로, 회사는 지난 2005년에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누적 169억 원을 출연하여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과 연동해 사회공헌 지원금을 삭감하는 기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 그룹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공헌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내외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변화무쌍한 경영 일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한다. 그건 아마도 그가 가진 문화적 소양이 남달라서이지 않을까.

그는 학창 시절 교과서 속 ‘독서는 천재의 작품 안에서 내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다’라는 글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독서만이 아닐 것이다.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경험은 자기 삶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준다. 그 경험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사회 문화의 힘을 키운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지식을 나누는 점에서 책도 나눔이예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유롭고 따뜻해지길 바란다면, 그 어떤 나눔이라도 상관없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올해 시작한 문화예술 사회공헌을 두 가지 방향에서 변함없이 실천하고, 티켓 나눔을 지방에서도 열어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창작공연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언젠가 우리의 창작 공연이 세계무대에 올라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두고두고 꺼내 보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는 삶의 여유를 찾아서 바뀔길 기대한다. 지금보다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언젠가 우리의 창작 공연이 세계무대에 올라 우리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송영록 이사장

예술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후배 예술인 멘토링 메세나



백건우와 협연한 올키즈스트라

예술가가 키우는 예술가

이 글을 쓰기 얼마 전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인터뷰 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쇼팽의 내성적 성격에서 시작해 슈만의 극단적 자아, 로스트로포비치부터 콜린 데이비스까지. 그리고 음악가로서 바라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나눴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을 강조해야할지 확인해봤다. 백건우의 대답은 이랬다. “다른 건 짧게 쓰고, 이번에 나와 협연하는 아이들이 좀 써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오케스트라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형 ‘엘 시스템아’를 내세우며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경험하게 한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10주년을 맞아 백건우가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한 악장을 협연하는 무대였다. “내가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 안타까워.” 그가 오랜 시간을 원하게 된 것은 소리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악기 소리에 자신감이 없어. 주눅이 들어 있어. 아이들이 지하철 샅을 못 내서 연습하러 오지를 못하고, 지하철 샅을 주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어서 연습하러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백건우는 이번 연주료를 받지 않았고, 오랫동안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떤 음악가들은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들의 처지를 안다.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2013년 자신이 우승했던 센다이 콩쿠르의 올해 무대를 1차 예선부터 모두 지켜봤다. 그리고 한국 피아니스트 최형록의 소리를 인상 깊게 들었다. 최형록은 이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지난 8월 선우예권과 최형록은 기시간담회에 함께 나왔다. 최형록은 선우예권이 이날 골라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선우예권은 “2017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때 다른 것보다 연주복과 연주용 구두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라고 했다. 그는 연주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대로 후배에게 해줬다.

선우예권은 최형록을 비롯한 후배 피아니스트 7명의 무대를 마련했다.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임주희(19), 이혁(19), 이택기(21), 임윤찬(15), 홍민수(26), 김송현(16)이 독주회를 열고 있다. 선우예권은 8월 첫 독주회 무대에 섰고 연주료를 받지 않았다. 대신 후배 연주자들은 선우예권이 마련한 장학금과 티켓 수익금을 전달 받는다. 선우예권은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비슷한 상황의 선배를 만나기도 힘들었다. 앞으로 나보다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또 “물론 저보다 잘 사는 친구도 있겠지만(웃음) 물질적 지원도 최대한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음악 공부를 할 때, 미국 유학을 갈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도움의 중요성을 안다. 또 가끔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게 됐다.

예술 생태계의 생명력

예술가들의 선한 생태계는 이런 동력으로 구성된다. 백건우 또한 뉴욕의 단 칸방에서 배가 고파 환영을 보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다. 예술가들은 도움을 받아왔던 감사함으로, 또는 혼자 견뎌야했던 절실함으로 다른 예술가들을 돕는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2015년 이후 성악 전공생들을 초청하는 무료 공연을 종종 열고 있다. 역시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1978년 고등학생이던 그는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의 세종문화회관 내한 공연에 참석했다. “사춘기라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내 마음을 그의 노래가 바로 잡아줬다. 무대 위가 내가 살 곳이라는 생각을 그때 한 후 지금껏 노래하고 있다.” 그는 객석에 있는 후배 예술가들도 자신의 노래를 한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 데뷔 30년이 넘는 그는 “이제 나는 사명감으로 사는 ‘선교사 나이’에 접어들었다. 노래를 잘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묵직하다”고 했다. 높은 개런티로 유명한 조수미가 이런 공연에서만만큼은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선다.

단지 물질적이고 금전적 후원만이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연주자의 음악을 알아보는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그 길을 닦아준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 이전부터 바이올리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명동대성당 공연 무대

니스트 정경화가 그 음악을 골라냈다. 정경화는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일류 아티스트에게 조성진을 소개했고, 조성진의 잠재된 재능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공을 세웠다. 지금도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 무대에서 거장의 추천을 받은 신인들이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어느새 커다란 예술가로 성장해있기도 한다. 2007년 백건우와 한 무대에서 소개됐던 피아니스트 김선욱, 김태형, 김준희의 현재 활약이 눈부신 것과 같다.

비록 대형 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지 않아도, 그게 단지 운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아낼 수 있는 예민한 선배 예술가들이 있다. 단지 한두 번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다른 예술가들도 있다. 이들이 있는 한 가파르고 아슬아슬한 연주자의 길도 갈만한 것이 된다. **이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최형록



국민화와 국가 문화경쟁력

무민 캐릭터로 본 국가브랜드 디자인의 힘



01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무민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는 미키마우스, 핀란드에는 무민이 있다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등 국민화가 토베 얀손이 창조한 무민을 국민 캐릭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02

문화선진국들은 국민화가를 기념하거나 전 세계에 홍보 마케팅 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국민화가 보유의 순기능

세계 여러 나라에는 국민화가들이 있다. 국민화가는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 중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미술가를 가리킨다. 국내 미술계는 대체로 대가, 거장, 유명작가, 인기작가 등을 편의에 따라 선택해 ‘국민화가’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선정기준, 자격기준, 업적 평가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국민화가는 칭호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화가는 국가이미지를 드높이는 소중한 유·무형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를 상징하는 국민화가를 선정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국민화가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민족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작가, 세계미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의 연구물에 자주 인용되는 작품, 시대적 감응을 통과한 거장들 가운데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 선정된다. 한 나라가 국민화가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대내적으로는 나라 사랑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켜 국민대통합에 기여한다. 대외적으로는 독창적 문화콘텐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는 등 외교, 경제,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해외 문화선진국의 국민화가 마케팅

문화선진국들은 국민화가를 기념하거나 전 세계에 홍보 마케팅 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국민화가 렘브란트는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전성기에 도달했던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네덜란드인들은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17세기를 ‘렘브란트 시대’로 부르거나 하면 아예 ‘렘브란트 나라’로 칭하기도 한다.

렘브란트의 이름을 딴 광장을 만들고 동상을 건립해 그의 위대함을 기념한다. 2016년 네덜란드 델프트과기대, 렘브란트미술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이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한 <넥스트 렘브란트 The Next Rembrandt>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공동개발팀은 인공지능에게 렘브란트 화풍으로 모자를 쓰고 하얀 깃 장식과 검은색 옷을 착용한 30~40대 백인 남성을 그리라고 명령했다. AI는 18개월 동안 렘브란트의 작품 346점을 분석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렘브란트와 똑같은 화풍으로 남자의 초상화를 그려냈다. 딥러닝 기법과 3D 스캐너를 활용해 인쇄된 이 그림은 원작의 질감까지 똑같이 재현해 세계적 화제를 낳았다. 네덜란드는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통해 17세기 화가 렘브란트의 부활을 알리며 그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숭배 받는 불멸의 화가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영국의 국민화가 윌리엄 터너는 찬란했던 대영제국의 번영과 영광, 제 1차 영국산업혁명 시대정신을 상징한다. 영국중앙은행은 2020년부터 영국에서 통용될 예정인 20파운드에 지폐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추천을 받아 터너의 자화상과 그의 대표작 <전함 테메레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함 테메레르는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물리치고 영국에 결정적 승리를 안겨준 전설적 군함이다. 영국의 국립미술관 테이트 브리튼



01
핀란드 무인월드
©서터스톡

02
핀란드 국민화가 토베 안손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은 해마다 수여하는 영국 최고권위의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의 명칭을 터너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고 11개의 터너전시실도 별도로 마련해 그의 명성을 빛내주고 있다.

핀란드 무민 캐릭터의 어머니, 토베 마리카 얀손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무민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는 미키마우스, 핀란드에는 무민이 있다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등 국민화가 토베 얀손이 창조한 무민을 국민 캐릭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무민은 토베 얀손의 만화, 동화,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다. 무민의 탄생 배경은 다음과 같다. 토베 얀손은 1945년 펴낸 첫 번째 무민동화 <무민 가족과 대홍수>에 무민을 최초로 등장시켰다. 첫 출간 이후 1970년까지 약 26년에 걸쳐 무민 가족과 무민 친구들의 모험이야기를 담은 8권의 동화시리즈를 발표했다. 사랑스럽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흥미로운 모험담이 결합된 무민 동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5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천만 부가 팔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모험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화 속 메시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즐거운 무민 가족> 시리즈는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토베는 무민을 창조한 업적으로 닐스 홀게르손 상, 스웨덴 아카데미 노르딕 상, 핀란드 최고 훈장인 프로 핀란드 훈장, 핀란드 예술상을 수상했다. 무민 동화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무민을 활용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난감, 벽화, 포스터,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테마파크 등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자연·역사·국민성 두루 담은 캐릭터

핀란드가 국가브랜드 상품으로 무민을 선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무민이 핀란드인의 나라사랑과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무민의 생김새를 보면 하마가 연상되지만 원형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 괴물인 트롤(Troll)이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트롤은 숲속에 사는 나쁜 요정 혹은 거인족을 말하는데 수명은 약 300년이다. 북유럽 신화는 핀란드 영화, 만화, 게임,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의 뿌리이자 상상력과 지혜의 원천으로 토베 얀손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신화 속 트롤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었다. 무서운 괴물인 트롤을 하얗고 포동포동하며 하마를 닮은 귀엽고 친근한 현대적 캐릭터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게다가 무민 가족이 사는 무민 골짜기의 자연환경과 날씨, 일상생활은 핀란드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다. 핀란드는 위도 상 세계 최북단에 위치한 나라다. '북쪽에 사는 야만인의 땅'으로 불릴 정도로 자연환경이 황량하고 척박하다. 1년의 절반이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다. 겨울은 암흑의 계절로 하루에 3~4 시간만 빛이 들고 지역에 따라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 반면 여름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이 나타나는 극단적 자연환경을 가졌다. 국토의 72%는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고, 수면 면적이 500㎡가 넘는 호수가 18만8천여 개에 달한다. 핀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베 얀손은 북유럽의 척박한 지형, 혹독한 기후, 국가자원인 숲과 나무, 호수를 무민의 흥미로운 모험담에 담았다.

또한 무민 가족은 물론 주변 친구들의 성격과 사고방식은 전통을 존중하고 정직과 협동, 독

03
미국 미키마우스 캐릭터
©셔터스톡

04
무민작가 토베 얀손에게
영감을 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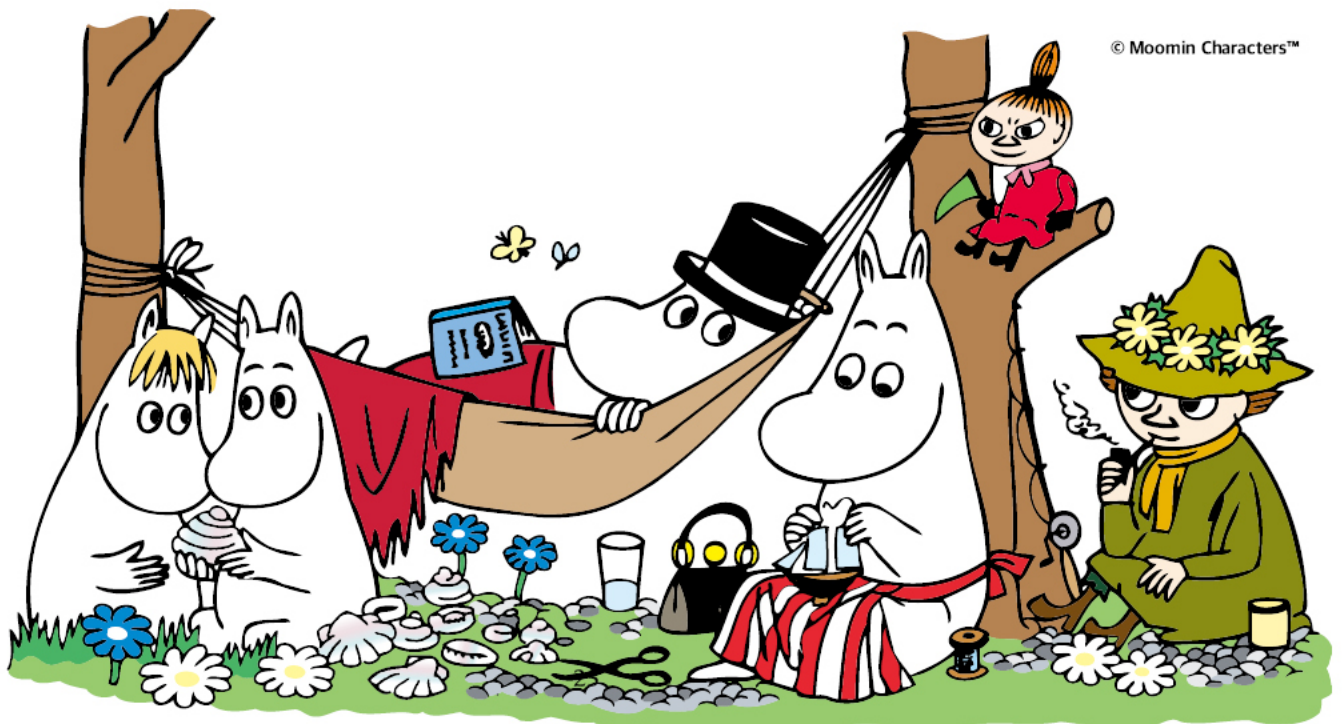


04

무민 가족은 물론 주변 친구들의
성격과 사고방식은
전통을 존중하고 정직과 협동,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핀란드 국민성을 대변한다

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핀란드 국민성을 대변한다. 무민은 단순히 캐릭터를 넘어 핀란드 고유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2014년 핀란드정부는 무민의 어머니 토베 얀손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매했다. 국민화가의 공적과 위상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언젠가 핀란드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실내를 관찰해보라. 각 가정에 있는 과자, 샴푸, 커피, 자일리톨껌, 엽서, 식기 등 다양한 상품에서 무민 캐릭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 명품 도자기 아라비아(Arabia) 그릇을 주목해보라. 1873년에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핀란드를 대표하는 도자기 회사인 아라비아는 무민 스토리가 그려진 수십 종류의 다양한 식기로 구성된 무민 클래식 컬렉션을 선보여 핀란드인들의 식탁을 장식했다. 이런 사례들은 긍정, 희망, 꿈을 상징하는 무민이 핀란드의 국민 캐릭터로 일상 속에 언제나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Moomin Characters™

예술 품은 금융산업

문화예술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시중은행



01
신한은행의 '위드 콘서트'

02
KEB하나은행 '코리안 아이 2020' 전시 장면

03
시민들에게 매월 무료 공연을 선사하는
부산은행의 '위라벨 컬처 in 부산'

04
미술작가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KEB하나은행의 '코리안 아이 2020' 협약식

음악·미술 분야별 특화된 금융계 문화예술 지원

식음료·가전제품은 물론 금융권까지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아트마케팅이 활발하다.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예술 작품을 통해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고급화하려는 전략이다. 그중 시중은행이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회공헌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부터 장애인 예술가 육성까지 다방면에서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하트하트(Heart to Heart) 오케스트라’ 단원과 신한음악상 수상자들의 협연 무대인 ‘위드 콘서트’를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음악으로 장애와 편견을 뛰어넘어 진솔하게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다. 특히 매년 국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하는 신한음악상은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았다. 신한은행은 부문별 수상자에게 장학금을 4년간 매년 4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 유명 음악학교 단기연수, 신한아트홀무로 대관 등을 지원해 신진 문화예술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신한음악상을 통해 발굴된 예술가들이 국내외 유명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지아(2012 퀸 엘리자베스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3위)를 비롯해 박진형(2016 프라하의 봄 피아노 국제콩쿠르 1위), 김동현(2019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3위) 등이 대표적이다.

미술 분야 지원에 특화된 KEB하나은행의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한국 신진 작가들을 위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코리안 아이 2020(Korean Eye 2020)’ 후원이 대표적이다. 2009년 영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아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곳곳으로 확산돼 재능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세계무대 진출 기회를 제공해왔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아이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아 기획된 ‘코리안 아이 2020 :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회화, 사진, 조각, 비디오 분야에서 엄선된 한국 작가 30명의 작품 전시를 본점 로비에서 개최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하나 장애인 디자인스쿨 2019 : Just Artist’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하나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나아가 관련 사회적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 예술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하나은행·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립미술관이 공동 후원하는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올해로 27년째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어린이 미술대회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장르 넘나드는 지역 거점 프로젝트

지역 은행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한 BNK부산은행의 지원 행보는 지역 문화예술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도가 높다.

부산은행은 부산국제영화제 24년간 후원해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발돋움시키고 부산불꽃축제를 지역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온 주역이다. 최근에는 부산시 중구청, 부산국제영화제와 협력해 지역문화융성사업인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조성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영화를 매개로 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성 후에는 영화와 영상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상시 도입, 운영될 계획이다. 일부 지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를 만들어 지역민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술 분야 지원도 활발하다. 지난 9월에는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과 아트 마케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일상 속 행복한 모습을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담아내는 작가의 화풍을 통장, 카드, 달력 등에 활용하고 12월부터 내년 4월초까지 무료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작가 미술대전을 개최해 차세대 청년 작가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도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밖에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대강당)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매월 다양한 공연을 이어가는 ‘워라벨 켄처 in 부산’ 프로젝트를 실시해 영화·미술·공연 장르를 넘나들며 부산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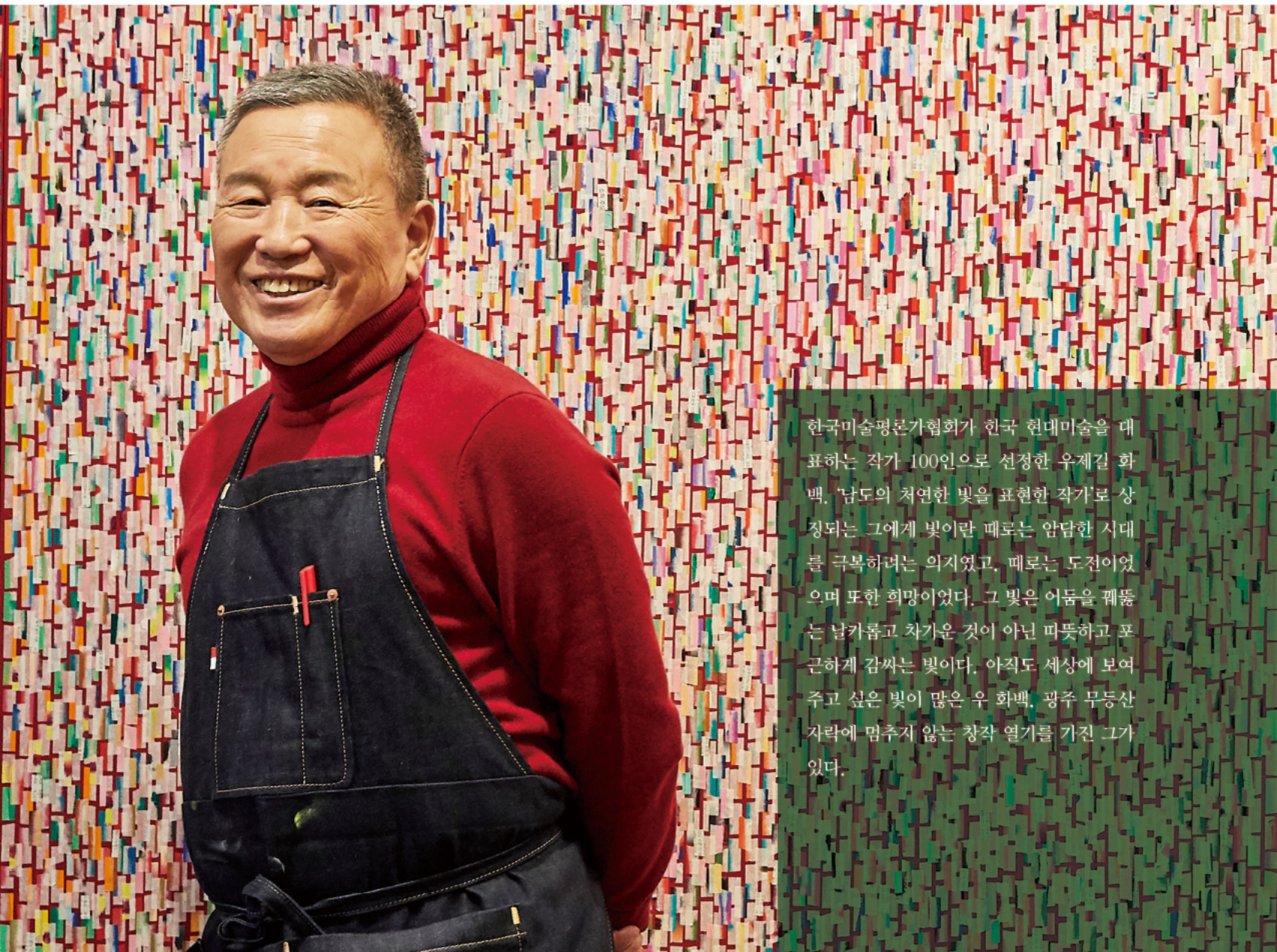
이처럼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을 선택한 금융계의 행보는 매우 고무적이다. 젊은 소비자를 유입시킴은 물론 이미지 제고와 사회공헌 효과까지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04



삶 ; 세 가지 빛

‘빛의 화가’ 우제길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0인으로 선정한 우제길 화백, '남도의 처연한 빛을 표현한 작가'로 상징되는 그에게 빛이란 때로는 암담한 시대를 극복하려는 의지였고, 때로는 도전이었으며 또한 희망이었다. 그 빛은 어둠을 꿰뚫는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아닌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는 빛이다. 아직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빛이 많은 우 화백, 광주 무등산 자락에 멈추지 않는 창작 열기를 가진 그가 있다.



첫 번째 빛 감성

1942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우제길 화백은 4살 때 부모님과 함께 광양으로 돌아온다. 자연의 다채로운 색감과 풍경 속에서 노닐던 어린 시절은 작가의 감성을 굳건히 해준 뿌리가 됐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이의 빛에 매료돼 한없이 뒤를 쫓던 천진난만한 아이는 빛을 담는 현대 추상미술의 대가가 됐다.

1970년대 초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우제길 화백이 적잖은 세월 동안 예술가로서 빛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끊임없이 작업 방식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예술가적 감성을 분출했기에 가능했으리라. 그는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서라면 쓰레기장도 고물상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하루는 실개천가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버려진 화물 패널을 운명처럼 만난 날을 기억한다.

“초라하게 버려져 있지만, 과거 어느 때에는 소중한 것을 담았을 나무 박스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1980년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졌던 우리 지역의 현실과 비슷한 처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없이 눈비를 맞으며 버터낸 세월의 흔적들이 제게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는 재료로 보였습니다.”

그는 탕화기법의 호분가루와 마포천을 입혔고 그 위에 ‘빛’을 올렸다. 그 빛은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는 희망의 빛이었다. 4·19와 5·18이라는 격변의 시간 앞에 나서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그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술혼으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 마음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그날의 소리, 그리고 빛’이라는 설치 작품을 통해 더욱 드러났고, 작품은 관람객이 선정한 최고 인기작가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공공미술 제작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감성은 시각예술 매체의 다양한 활용으로 이어졌다. 그는 드로잉, 수채화, 유화는 물론 예칭, 실크스크린, 콜라지 등의 다양한 기법을 다룬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상, 설치, 공공조형물, 패션쇼까지 그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시대적 감성에 귀 기울이고 조금씩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고여 있기 마련이에요. 새로운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고여 있으면 곤란하죠. 깨어있어야죠.”



두 번째 빛 열망



1955년 어린시절 사용한 음악 노트(위)와
1961년 작업한 드로잉 일부(아래)

우제길 화백은 중학교 때부터 화가를 꿈꿨다. 쪽물을 이용해 그린 풍경화 과제를 본 미술선생님은 그의 재능을 단숨에 알아보고 미술부 가입을 권유했다. 그 덕분에 ‘그리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과학 노트에는 인체사진을 드로잉하고 음악시간에는 직접 오선지 위에 악보를 그렸고 정성스레 배경을 그려 넣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은 미술학도의 길도, 서울 유학의 길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광주사범학교에 진학했다.

“당시에는 그나마 석고상이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추상미술에 눈을 뜨게 됐죠. 광주 초기 추상미술을 일군 양수아 선생님을 만났으니까요.”

그가 추상미술에 입문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광주사범학교는 호남 추상미술의 산실이었다. 양수아 선생이 학교의 스승이었다면 화단의 스승은 강용운 선생. 두 추상미술의 선구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화백은 추상의 세계로 들어서 줄곧 그림을 그렸다. 그렇지만 항상 중심에서 벗어난 이방인과의 같은 삶. 시스템이 잘 갖춰진 중앙 화단에 비해 지역 작가들이 털 주목받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미술전공이 아닌 비전공자는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그는 독학과도 다름없는 길을 꾸준히 걸어갔고 마흔 줄이 돼서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광주사범학교 졸업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작품 활동은 꾸준히 이어갔다. 그의 열망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자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꼬적이던 어린 우제길의 그 마음으로만 향해갔다. 그러다 1969년 ‘에포크(Epoque)’를 만난다. 광주 지역 현대미술의 전초기지와의 같은 그룹이었다.

“제 작가 인생에서 에포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추상과 구상의 갈림길에서 확실히 추상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 작가로서의 길을 닦는 데 돌파구가 되었죠. 제 힘의 원천이자 동반자를 만난 셈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붙었고 물 만난 고기처럼 더욱 작업에 매진했다. 자신의 작품세계를 단단히 구축하며 국전을 비롯한 공모전의 문을 두드렸다.

세 번째 빛 도전

1972년 제8회 전남도전 최고상 등을 수상하며 점차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 우 화백은 1976년 한국미술대상전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중앙화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교류전에도 활발히 참여해 기회를 만들어간다. 그 결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잇따라 전시회를 열고 이름을 알렸다. 그는 그제야, 교직생활을 접고 오랜 열망인 ‘전업 작가’로서 오로지 창작활동에 마음껏 빠져들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우제길미술관

“제가 오직 작품 활동에 몰두하게 된 것은 아내 덕분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 작업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 예술가의 활로를 찾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도전이었지만, 어찌면 아내에게는 더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죠.”

지금은 광주 동구 운림동의 명소로 자리 잡은 우제길미술관, 이곳은 본래 개인 작업실로 지어졌다. 부인 김치순 우제길미술관장의 삼고초려 끝에 승효상 건축가의 손길이 닿으면서, 지난 2014년에 ‘빛의 이미지’를 살려내는 현재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이곳 지하에는 작업실과 자료실이 있으며 지상은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미술품 전시, 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야외 조각공원, 공연장, 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아트 상품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이 소통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문화예술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꽃 피는 미래; 무등의 빛 광주의 빛’을 재구성해 전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작품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는데, 네 가지 키워드 가운데 빛이 우제길 화백의 작품을 모티브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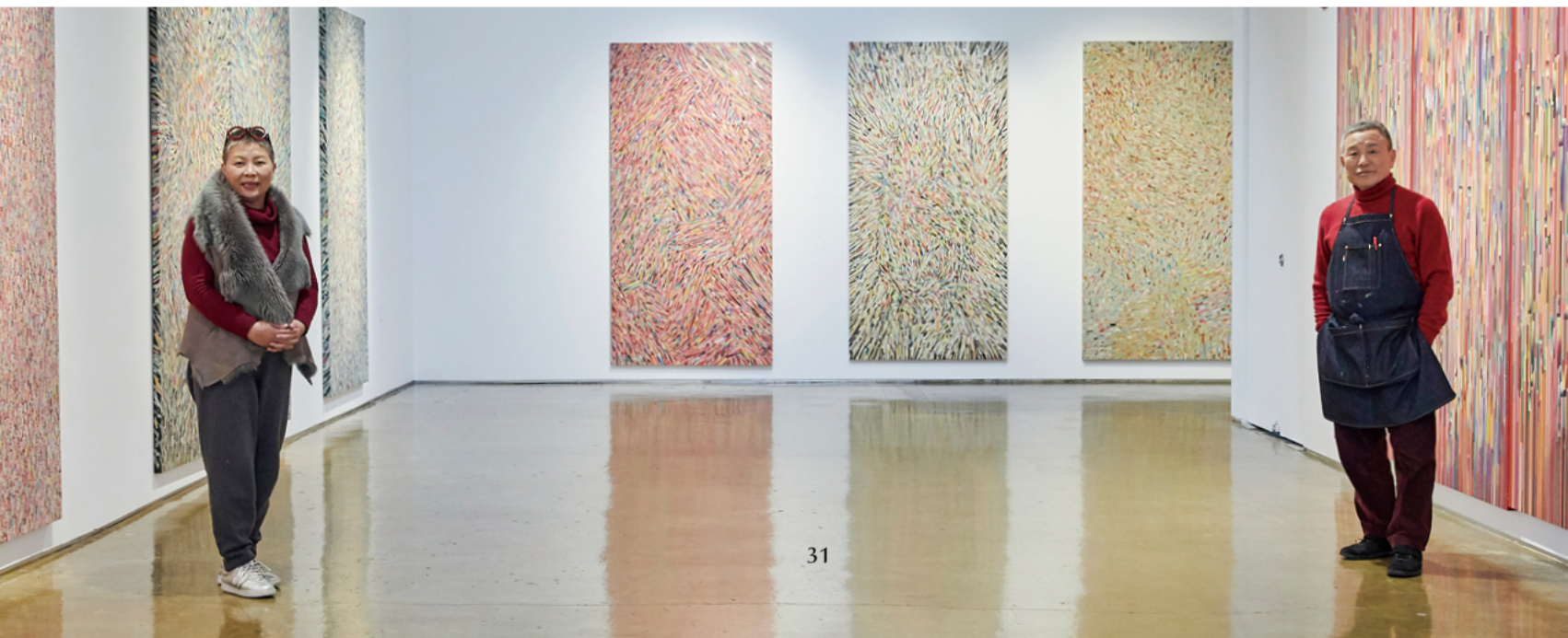
“재능기부 기회가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고요. 예술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공헌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실하게 창작활동을 해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는 지역의 한 소아병동에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잠시나마 아이들의 얼굴은 마음에 일렁이는 빛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다. 예술은 이렇게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인 처방전이 되기도 한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여전히 캔버스 앞에 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머릿속에 빛의 풍경이 떠오를 때는 정말 몸서리치는 전율을 느낄 때도 있죠.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행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이, 아직도 풀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아직도 나아갈 길이 있기에 더욱 노력해야죠.”

무려 개인전 97회, 단체전 704회를 선보인 고령의 화백, 아직 그는 지치는 법을 모른다. 매년 신작을 발표하며 언제나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우제길 화백은 오늘도 청춘이다. 

우제길 화백(우)의 아내이자 든든한 예술적 동지인
우제길미술관 김치순 관장(좌)



선율에 실린 춘풍

국제음악축제 <프라하의 봄>



01

음악으로 물 드는 프라하의 봄

매년 5월 초부터 시작돼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체코 프라하의 국제음악축제는 유럽의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간 배출해온 작곡가들처럼, 풍성한 음악적 문화의 면면을 보여준다.

프라하 행 체코 (국영)항공을 타면, 도착과 동시에 비행기 안에서부터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이 흘러나온다. 익숙한 선율이 반가워 이견 스메타나가 아니냐, 물으면 체코 항공의 승무원들이 뿌듯한 얼굴로 '우리 작곡가'라고 답한다. 전체 인구가 천만 남짓한 작은 나라이지만 체코는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문화적 저력을 가진 나라다. 체코 출신 작곡가로 드보르작, 스메타나, 야나체크 등이 있고, 프라하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수준 역시 런던, 파리, 빈 등 서유럽의 다른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프라하에서 매년 한껏 만개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5월에 열리는 <프라하 봄> 국제음악축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인 프라하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2차 세계대전이 직후인 1946년 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매년 봄날이면 프라하를 음악으로 물들여 온 대표적인 축제다.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된 이 축제는 2020년 무려 74회를 맞는다. 축제 첫날 프라하의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솔리스트들과 실력으로 높이 평가받는 오케스트라들이 총출동한다. 작년에는 미디어의 거품 없이 탄탄한 실력과 개성으로 통령하고 있는 독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이자벨레 파우스트, 특유의 깊고 탄탄한 사운드로 인정받는 밤베르크 심포니가 드보르작, 스메타나의 곡을 선보이며 그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뽐내 프라하를 찾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오프닝 콘서트는 자주 매진인 만큼 같은 날에 열리는 무료 야외 공연으로 부담 없이 축제의 시작을 즐기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프라하의 캄파섬 공원에서 열리는 야외 오프닝 공연에는 가족, 연인 단위로 야외에 나온 사람들이 잔디밭에 편안하게 앉아 와인이나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며 봄날의 햇빛 아래 석양을 바라보며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느슨하고 편안하게 피크닉을 즐기러 나온 듯한 이들이 마치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주를 들으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오프닝 콘서트 900크로나(한화 4만5천 원), 마스터 클래스와 콩쿠르, 합창단 공연 등은 100~400크로나(5천 원~2만 원)에 불과하다. 한화로 수십 만 원에 육박하는 여타 유명 클래식 음악 축제에 비해 부담 없는 티켓 가격도 <프라하의 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02

01
프라하의 봄 오페라하우스
Prague Spring o.p.s.

02
프라하의 봄 2019
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9




03

03
축제 기간 중 상설
열리는 클래식공연

04
루돌피눔
Galerie Rudolfinum

74년 클래식 축제 명성을 잇다

프라하에서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콩쿠르를 직관하면서 미래의 탁월한 음악가들을 일찌 감치 발견하거나, 미리 결선 진출자 혹은 우승자를 가려보는 경험도 가능하다. 프라하의 봄 콩쿠르는 특히 목관악기에서 명성이 드높다. 오보에나 프렌치 호른, 플룻 등 이미 손꼽히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눈에 띄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연주자들이 출전해서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100크로나 남짓한 매우 저렴한 가격의 입장권으로 쟁쟁한 실력의 참가자들이 혼신을 다해 연주를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오프닝 콘서트와 콩쿠르, 마스터 클래스 등 모든 티켓은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축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 시기에 맞춰 여행 중이라면 시민 회관, 루돌피눔 등의 박스 오피스에서도 오프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청소년,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특별히 20%의 할인 가격이 적용되어 한 끼 식사에 준하는 패스트푸드 세트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고품격 공연 티켓을 구할 수 있다.

〈프라하의 봄〉국제음악축제는 공연감상과 더불어 중부 유럽의 자그마한 나라 체코가 피워 온 찬란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시대별 주요 건축 양식들을 거의 만나볼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손꼽히는 작곡가들은 물론 카프카와 같은 작가의 흔적도 만날 수 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 야나체크가 세상에 남긴 보헤미아의 정서를 담아낸 걸작들과 함께 젊고 패기 넘치는 재능을 지닌 연주자들까지 아름다운 프라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음악·문화·예술이 일부 특권층이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한 공공재라는 가치가 실현된다. 

프라하의 봄

· 일시 2020.5.7-6.4
· 장소 Prague Spring o.p.s.
· 홈페이지 <https://festival.cz>



04

“왜, 날 키워요?” 식물이 나에게 물었다

1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KIAF
(Art Collaboration 드림그림X파도식물)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KIAF

who

한성차 드림그림 장학생
40명과 전문가 그룹
'크리에이티브 듀오'

what

제18회 KIAF 전시장에
파도식물이라는 작품 전시

“작품에 투영된 식물의 마음이 느껴져요”

지난 9월 26일~29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8회 한국국제아트페어(Korea International Art Fair, 이하 KIAF)에서는 전문 화가의 작품이 아닌, 화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만든 작품 몇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바다보다 더 파란 색깔의 돌로 만든 이 작품의 제목은 <파도식물>.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장학생' 40 명이 만든 예술작품이다. 식물을 매개로 작업을 전개하는 미술가 집단 '크리에이티브 듀오'와 함께한 수업의 결과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는 국내 최대의 아트마켓인 KIAF에 3년 째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의전차량을 지원하고 자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드림그림' 장학생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파도식물이라는 예술품이 만들어진 데에는 첫 수업, '식물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인터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식물의 관점에서 궁금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적어 식물들과 인터뷰 할 수 있는 인터뷰 룸을 만들기 위해 식물에게 가장 친근한 소재인 돌을 사용하여 의자를 만들었다. 파랗게 칠한 화산석을 쌓아 조립해 만든 의자에 앉아 '산소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생산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세상은 어떤가요?' '저는 발이 묶여서 궁금해요' '제가 왜 필요한가요?' 등 학생들이 구성한 질문으로 식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보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

이번 KIAF에 전시된 <파도식물>은 오랫동안 공을 들인 작품이다.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이미 지난 여름방학에 '인텐시브 썸머아트캠프'와 '아티스트 멘토링' 수업을 통해 식물이나 자연을 소재로 활용하는 새로운 영역의 미술에 대해 배우고 '돌담'을 제작하여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드림그림 장학생인 중앙중학교 3학년 문세진 학생은 “2018년 진기종 작가님과 함께한 설치미술에 이어, 올해에는 크리에이티브 듀오인 파도식물과 함께 식물을 소재로 하는 예술을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며 “KIAF라는 큰 행사에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감동적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



01



02

01-02

2019 KIAF를 통해 선보인 <파도식물> 전시현장

동심 춤추는 환상 동화

2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키즈오페라'



01-02-03
키즈오페라
'수리수리 도레미'



오페라 희망이야기 '키즈 오페라'

who
20개 병원의 어린이 환자와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미리오페라단

what
어린이 맞춤형 키즈오페라
'수리수리 도레미' 공연


'도레미처럼 친구들과 꿈과 용기를 나눌 거예요'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크리스마스는 한 달이 나 남았지만 11월22일 서울경운학교에서 진행된 '수리수리 도레미' 공연의 커튼콜 현장은 이미 성탄절이었다. 지적장애 아동들과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관객들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 미리오페라단은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의 일환으로 어린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과 학교 20곳을 방문하여 어린이 맞춤형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다. 올해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경운학교, 한국우진학교 등 특수학교도 함께 방문하여 '키즈오페라'를 선보이고 있다.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자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9년째 전국 여러 지역의 어린이 환자들을 찾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다채롭고 새로운 공연을 선물하기 위해 미리오페라단과 함께 우수한 어린이 맞춤형 공연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키즈오페라 '수리수리 도레미'는 사고뭉치인 주인공 도레미가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떠난 여행 길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에피소드에 유명 오페라 아리아, 광고, 영화 등에 삽입된 명곡들을 삽입해 재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국내 유명 마술사인 이은결 일루셔니스트의 자문을 받아 작품 곳곳에 마술을 결합하여 동심을 자극한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친구들을 만나 용기와 힘을 주는 도레미 그리고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실수를 만회하는 도레미의 모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경운학교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로 지적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연간 주기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았던 적은 없었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우수한 공연으로 설레는 추억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올해 방문했던 특수학교 아동들의 공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았으며 공연을 필요로 하는 여러 환경의 아동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상자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공연 전문가와 펼치는 무대의 꿈

두산 청소년 아트스쿨 '무대미술, 연기연출, 희곡 창작 워크숍'

"무대를 향한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섰어요"

무대미술, 연기연출, 희곡 장르별로 선발된 66명의 예비 연극인들을 위한 창작 워크숍이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평균 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각 장르별로 9회씩 워크숍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완벽에 가까운 참석률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연기연출과 희곡 장르에는 직장인, 비전공자도 다수 참여해 무대를 향한 열의를 불태웠다.

'두산 청소년 아트스쿨'은 무대미술, 연기연출, 희곡 분야의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 현업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에게 직접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술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술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법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워크숍은 '두산아트센터 아티스트'로 선정된 예술가 3인이 진행했다.

'무대미술 워크숍'은 뮤지컬 <모비딕>,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폭스파인더> 등을 통해 미술감독, 무대디자인, 연출가 등 다양하게 활동하는 무대미술가 여신동이 맡았다. 무대미술 파트의 참가자들은 무대미술, 건축, 가구디자인 등 공연예술 관련 유경험자와 전공생들로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감정, 이야기,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무대라는 공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갔다.

'연기연출 워크숍'은 최근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로 주목 받고 있는 극단 신세계 상임 연출가 김수정이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체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방법, 발성 및 호흡 등을 배우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인물을 표현했다. 자신과 반대되는 성별을 표현하는 젠더 크로스 연기 연출을 통해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을 6팀으로 나눠 나만의 스타일로 재구현해 보는 시간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희곡 워크숍'에서는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누수공사> 등의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난 극작가 윤성호가 진행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희곡으로 만들어 완성하는 과정으로 희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창작법을 배웠다. 직접 설정한 작은 가설에서 시작해 배경, 인물, 사건 등의 살을 붙여 단막극 혹은 장막극의 희곡을 완성해 한 장면을 배우를 통해 무대 위에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문가들과 함께한 워크숍을 통해 향후 진로에 대해 구체화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또래 참가자들과 함께해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IM**

3

두산 청소년 아트스쿨

who

무대미술, 연기연출,
극작가를 꿈꾸는 66명의
예비 예술가

what

각 장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한달 동안 워크숍

01
무대미술 워크숍
여신동(무대미술가)

02
연기연출 워크숍
김수정(연출가)

03
희곡 워크숍
윤성호(극작가)



군 생활 자아성숙의 기회로!

현대자동차 '2019 군인의 품격'

4



01
공연 입장을 기다리는
군 장병



02
공연 현장의 군 장병들

2019 군인의 품격

who
군 장병

what
'품격 있는 군인, 강인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뮤지컬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

"문화예술로 감성근육 키웁니다"

'군인의 품격'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로서의 군 장병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 군 장병들을 위해 품격있는 문화공연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충남 계룡대에서 '품격 있는 군인, 강인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 개막 공연을 시작한 이후 뮤지컬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까지 총 14회에 걸친 공연으로 8천여 명의 군 장병과 함께 진행되었다. '군인의 품격' 뮤지컬 콘서트는 단순한 위문공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군 복무에 매진하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와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연출가, 작가, 작곡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래부터 스토리까지 '군인의 품격'만을 위한 공연을 기획했고 평범한 주인공이 군 생활을 통해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군대에서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고충과 제대 이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군인이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많은 공감을 얻었다.

토크 콘서트는 진로, 취업과 창업 등 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됐다. 방송인 안현모,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 장재열, (주)모어댄 대표 최이현, 소통전문가 이민소대표 등이 나서 장병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 장병들에게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경쟁 사회 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초조함에서 벗어나,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기회로써 작은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이병훈 상무는 "토크콘서트와 뮤지컬 등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장병들이 힐링의 기회를 갖고 보다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박진우 중위는 "장병들은 휴가가 아니면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좋은 공연을 통해 군 복무 기간 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보다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 후 다시 사회와 학교로 되돌아 갈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장병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인의 품격'은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년 진화하는 중이다. 이 축제는 군 장병들이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기발한 아이디어 속 착한 메시지

5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서울디자인페스티벌
(Art Collaboration 드림그림X마음스튜디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서울디자인
페스티벌

who

한성차 드림그림 장학생과
디자인 그룹 '마음스튜디오'


what

2019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문구제품 전시 및 판매

“세상의 변화, 착한 아이디어로 승부해요”

12월 4~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디자이너, 디자인 브랜드,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디자인의 동향을 선보이고, 국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디자인 전문 전시 행사로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세계 진출을 돕고 세계 디자이너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유명 디자인 페스티벌이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드림그림'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고자 처음 이 행사에 참여했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은 디자인 그룹 '마음스튜디오'와의 아트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장학생들의 개성이 담긴 문구제품을 선보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과 여행을 표현한 그래픽과 패턴은 노트와 마스킹테이프, 렌티큘러 엽서로 완성되었고, 이러한 작품들은 '함께 달리는 꿈의 자동차'라는 차량 형태의 선반과 함께 부스에서 전시되고 판매되었다. 판매된 제품의 수익금은 추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디자인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감동을 느꼈고, 디자인 역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물건이라도 좋은 의미를 가진 디자인을 담으면 생활의 필요를 넘어 따뜻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드림그림 전시부스를 찾은 한성자동차 울프 하우스 프롱 대표는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그동안 다양한 예술 관련 페어에 참가해 왔다”며 “단순히 여러 번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그래픽과 패턴을 디자인한 작품이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01-02

디자인그룹 '마음스튜디오'와 학생들의 아트콜라보레이션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음주문화 캠페인

오비맥주(대표 고동우)는 사회공헌브랜드 'OB좋은세상'을 선보이며 음주운전의 경각심 일깨우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음주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침은 물론,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핵심 비전인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Oh! 행복한 일상 B법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

오비맥주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을 펼쳤다. 새내기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을,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들은 음주운전 근절 다짐 서약 카드에 직접 이름을 적어 건전음주 실천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는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면허증과 함께 배부됐다.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제작·배포

지난 9월에는 글로벌 본사 AB인베브가 바람직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한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ay, 이하 GBRD)'을 맞아 전사적 캠페인을 펼쳤다.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를 자가용, 영업차량, 택시 등에 부착하며 책임 있는 음주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배포식'을 열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 스티커를 무료로 배포하고, 전국도보운전자연합회 회원 차량에 스티커를 단계적으로 부착했다. 이에 앞서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음주운전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을 진행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10월 14일까지 지하철 9호선 주요 5개 역을 순회하며 전시돼 일반 시민과 승객들에게 음주운전 방지 메시지를 전했다.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외에도 바람직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들도 지속하고 있다. 오비맥주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전음주 봉사단은 수능시험장인 영동고등학교 앞에서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산하 청소년문화단 단원들과 함께 '청소년 음주 타파! 성인 되어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펀치게임 이벤트를 통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음주 호기심을 뿌리치며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유도했다.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시상

오비맥주는 매년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음주운전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과 관계자에게 표창과 시상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01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

02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수상작 전시

03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

04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시상식

음악이 전하는 품격 있는 축하
동성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 '동성페스타'



감동과 의미 더한 창립기념일 행사

창립기념일에 임직원 전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최근 기업들의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 가운데 꾸준히 메세나를 실천해온 한 기업의 특별한 창립기념일을 소개한다. 부산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온 화학기업 동성그룹은 지난 11월 7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와 함께 부산문화회관에서 클래식 음악회 '동성페스타-영웅이 부르는 신세계'를 진행했다. 그 흔한 인사말이나 축하 없이 그야말로 정통 클래식 음악회로 진행된, 동성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다.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에서부터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탄생-성공-영웅-신세계의 서사를 프로그램에 담았다.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은 동성의 창업주를 위한 것이었다. 프로메테우스(먼저 생각하는 자)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줌으로써 문명의 시작을 이뤘던 것처럼 동성그룹을 이뤘던 최초의 불꽃이자 베토벤을 사랑했던 백제갑 선대회장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작된 공연은 하나의 서사를 이루며 이어졌다.

다음으로 이어진 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K.219>이었다. 모차르트가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편안하지만 연주자에게는 너무나 어렵듯이, 기업가로서 겪는 고뇌와 번민이 있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로운 존재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늘 고민하는 백정호 회장에게겐 더없이 의미 있는 곡이었다.

기업의 경영철학을 예술로 풀어내는 방식

이번 동성페스타에는 요아힘 쿡쿠르우송 등을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마성의 카리스마'로 세계 오페라 무대를 누비는 바리톤 고성현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무대에서는 퀸엘리자베스 쿡쿠르 우송자인 소프라노 황수미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해 부산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고객, VIP, 동성그룹 임직원, 부산시민들이 초청된 동성페스타는 기업 관계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인구 30여 만 명에 불과한 피렌체가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예술의 산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지역사회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일지 모른다. 동성그룹이 보여준 창립 60년을 축하하는 나름의 방식은 축하의 자리를 넘어 기업의 경영철학을 예술로 풀어내어 지역민과 함께 나누어 아주 특별한 생일로 기억될 것이다.

인천 공장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선율
두산인프라코어-클럽M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공장 글로벌 R&D센터 로비에서 임직원과 가족, 협력사 인원 200여 명을 초대해 '인천 가을 음악회'를 열었다. 2017년 창립 8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음악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메세나로 결연을 맺은 클래식 악단 '클럽M'이 함께 했다. 특별 게스트로 소프라노 김한나도 함께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음악회는 클럽M의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중 '왈츠'로 막을 올렸다. 모차르트 '반짝반짝 작은 별' 주제에 의한 12개 변주곡, 파헬렐 '개논' 등 임직원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 등이 연주되었다. 공연 도중 결혼 10주년을 맞이해 사연을 보낸 Heavy BG 소음진 동/써멀 성능개발팀 최기수 선임연구원과 엔진BG 소형엔진시험팀 박정훈 선임연구원의 가족에게 전하는 사연이 소개되어 관객들의 환호와 축하를 받았다. 박 연구원은 "오늘 음악회가 아이에게는 첫 클래식 공연"이었다며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덕에 아이에게



첫 문화생활을 선물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손동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음악회로 땀 흘려 일하는 공간이 아름다운 선율과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듯하다"며 "연주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악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가을저녁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
오비맥주 창작 연극 '가족사진'과 '패밀리토크' 진행

2019 패밀리토크

가족소통 창작연극

가족사진

가정과 함께 연극 보러 오세요!
(12세 이상 관람가)

아빠
공과 소통 잘하는 아들 만들기

엄마
소통을 통해 우리 관계를 개선하자!

아들
I LOVE 아파를 뵈

2019년 11월 9일(토) 오전 11시
@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 6층 토마스홀

1부 창작연극 '가족사진'(40분) 2부 임영주 박사 '토크콘서트'(20분)

2부 토크콘서트 강연자 소개 | 임영주 박사

-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 네이버/유튜브 채널 '임영주부모교육TV' 운영
- EBS <부모사랑> '집안에서 교육' 고정 출연
- 서울교육대, 숭례교육청과 MOU 체결 부모교육 진행
- KBS <이심애당>, <행복발견스> 등 다수 출연
- 부모교육 강연기업체, 공공기관 특강 등 다수

패밀리토크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나누는 오비맥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출연: 김태범, 박해진, 김예은, 송명인, 박우근, 박순용, imd, 오비맥주,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비맥주는 지난 11월 9일 서울 강동구 월드글로리아센터에서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 '패밀리토크'의 연극 공연을 상연했다.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10주년 기념행사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주제로 한 창작연극 '가족사진'과 가족소통 전문가 임영주 박사의 '토크 콘서트'로 구성됐다. '패밀리토크'는 오비맥주가 2015년부터 펼치고 있는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연극 화법을 통해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민감한 가족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가족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연극 '가족사진'은 세대 간 공감대가 부족한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이 어색한 가족사진을 찍으며 겪는 소통 해프닝을 그린 유쾌한 가족극이다. 연극 후에는 가족소통 전문가 임영주 박사의 바람직한 가족 대화법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가을에는 단편영화!
제17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ASIA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씨네큐브 광화문 에무사네마

19.10.31-11.5

www.asiff.org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지난 10월 31일 개막을 시작으로 6일간 씨네큐브 광화문과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열렸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총 118개국 5,752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국제경쟁에 총 35개국 53편, 국내경쟁에 15편이 선정되었다. 올해 영화제 국내경쟁 대상에는 김선경 감독의 <기대주>가 선정되었고, 국제경쟁 대상에는 마리 르 플록 감독의 <아몬드 나무 사이>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수상작 <아몬드 나무 사이>에 대해 "여러면에서 완성도도 높았지만 수많은 단편에서 다뤄왔던 난민문제를 정치적 이슈나 국제사회의 문제적 시각으로 다루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그들이 '난민'이기 전에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부산·경남 지역 미술의 미래를 말하다
유중아트센터 지역 신진작가 전시 개최



유중아트센터는 부산화랑협회와 함께 지난 11월 23일~12월 1일 부산지역 신진 작가 발굴과 양성을 위하여 'AGE2030전'을 개최했다. 'AGE2030전'은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의 특별전으로 부산·경남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유중아트센터 정승우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서울에 진출할 기회가 적은 신진 지역 작가들의 서울 진출을 도모했고 서울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전시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전시였다"고 말했다. 참여작가는 고우정, 모모킴, 김인지, 김창일, 노인우, 박소현, 박재희, 안소현, 이준, 임상훈, 전기숙 등이다. 2020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는 내년 4월11일~13일까지 벅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1983년 시작된 여성 백일장 대회
동아제약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개최



동아제약은 지난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7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을 개최했다.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1983년 시작된 가장 오래된 국내 여성 백일장 대회로 여성 문학 연구의 저변 확대와 문예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ST,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 부문 정 선택해 글을 짓는다. 각 부문 장원에게는 문예지에 등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정된 '약속', '가방', '어제', '일기장' 4가지 글제 중 하나를 선택해 글을 지었다.

원고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5명, 특별상 2명 등 총 32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시, 산문, 아동문학 각각의 장원으로 유태양, 남설희, 최원실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 농촌 학교에 울려 퍼진 사랑의 선율

동서식품 '제12회 맥심 사랑의 향기' 개최

지난 11월13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철마초등학교에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이 넘치는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다. 전교생 80여 명으로 구성된 철마오케스트라와 부산 출신의 유명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펼친 '제12회 맥심 사랑의 향기' 음악회다. 이 특별한 음악회는 동서식품의 '맥심 사랑의 향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악기와 단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연주회였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맥심 사랑의 향기'는 나눔이 필요한 곳에 문화 자산을 후원해 사회 전반에 문화 예술 향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동서커피클래식'과 더불어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활동으로 꼽힌다. 철마초등학교는 전교생이 80명으로 전교생 전부가 철마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철마오케스트라 음악 꿈나무들에게 팀파니, 베이스 드럼 등 악기를 기증하고, 지역 봉사활동 음악회, 대회 참가 등 외부 행사시 착용할 수 있는 단복을 선물하며 앞으로의 꾸준한 음악활동을 응원했다.

철마초등학교 음악회가 열리기 전 날,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연주한 '제12회 동서커피클래식'이 열렸는데, 이날 연주한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5명이 철마초등학교 '맥심 사랑의 향기 음악회'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한 시간이기도 했다. 부산시향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팀파니 등 악기 연주법을 지도해 주었으며,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철마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습한 곡으로 감쪽 협연을 펼치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종화는 음악가의 꿈을 이루기까지 본인의 경험을 주제로 한 미니 강연과 함께 화려한 솔로 연주를 들려주며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맥심 사랑의 향기'는 2008년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 후원을 시작으로 지역 초등학교와 보육원을 찾아 12년간 총 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악기와 연습실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서식품은 지난 2009년 '제2회 맥심 사랑의 향기' 수혜




정연학 동서식품 전무(왼쪽)와 강주석 철마초 교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악기 지도

연주를 선보이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처로 선정했던 신안초등학교(경남 산청군)의 신안원드오케스트라를 다시 한번 찾아가다. 클라리넷 등의 악기를 추가로 기부하며 부산 및 경남 지역 음악 꿈나무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신안원드오케스트라는 수혜처 선정 이후 매년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해 수상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서식품 '맥심 사랑의 향기'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음악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음악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메세나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천사들의합창 공연

지난 11월 29일, 국내의 음원사이트에 특별한 노래가 발매되었다. 유명 가수들의 화려한 음원 사이에서 담백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았다. 바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동 39명과 롯데월드 임직원, 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가 함께 참여한 음원 '눈꽃길', 'Oh Happy Day'다. 롯데월드는 2017년부터 매년 겨울, 노래와 무대공연을 통해 소아암어린이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Stage>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회차를 맞은 올해에는 소아암 아동 총 39명이 함께 했다. 노래 작곡·작사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 소아암 아동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 무엇을 원할까? "왜 나만 아플까 슬펐어요.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오늘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소방관이 꿈인데 될 수 있겠죠?" 이들의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는 것. 이 이야기는 '눈꽃길'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꿈을 이루는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어른들의 노래가 신나는 'Oh Happy Day'로 완성됐다. 노래와 무대공연 연습은 노래연습 4회, 공연연습 3회, 녹음 1회 등

총 8회 진행되었다. 9월부터 12월까지, 격주 주말마다 연습을 했으며 겨울은 면역력이 약한 소아암 아동들에게 무척 힘든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심히 참여했다. 가끔 결석한 아동들 조차 집과 병원에서 노래 연습에 매진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겨울에 꿈을 이룬다는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녹음날을 기다렸노라고 했다. 이들은 "저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가 나온다는게 너무 신나요. 녹음 전날 설레여서 잠도 잘 못 잤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소아암 아동들의 목소리와 롯데월드 직원들, 그리고 춤과 연기, 노래를 이야기와 결합한 종합 퍼포먼스 그룹 하모나이즈의 목소리가 조화된 이 노래는 지금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의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익금은 모두 소아암 치료비로 기부된다. 그리고 12월 15일 오후 4시, 아이들의 첫 무대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제목은 롯데월드 '천사들의 합창 시즌3'이며 공연 장소는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다. 잠실 롯데월드의 가장 큰 무대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을 위해 소아암 아동들은 안무까지 열심히 준비했다고. 비록 몸은 아프지만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소아암 아동들의 소중한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

2

롯데월드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하모니

롯데월드&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

'눈꽃길', 'Oh Happy Day' 음원 녹음



국내 최대 규모 〈2019 국악관현악축제〉

크라운해태홀딩스&한국음악협회



2019 국악관현악축제




2019 국악관현악축제 김덕수 사물놀이패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한국음악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악관현악 축제를 지난 10월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국악관현악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에 이르기까지 한국 음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밝혀줄 작품을 소개하는 음악축제다. 특히 올해는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라는 신진 국악인들로 구성된 관현악단과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해 실력있는 예술가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2019년에 졸업한 신인 연주자부터 만 35세 이하의 청년 국악인들로 구성됐으며, 공모를 통해 연주 단원을 선발하여 총 2회의 연수과정을 거쳤다. 단원들은 축제가 끝난 뒤에도 국악관현악 연주 활동 외에 일반인을 위한 국악교육 등 연주자들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갈 예정이다. 국악관현악축제에서 신진 연주자들로 구성된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국악계 거장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하모니는 큰 감동을 자아냈다. 남도아리랑(백대웅), 방아타령(김영재), 춤추는 관현악(김성국), 신내림·창부타령·신모듬(박범훈)이 연주됐으며, 해금 연주자 김성아, 피리 연주자 김경아가 협연했고,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우정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한국음악협회는 1932년에 창설된 조선음악가협

회를 모태로 1961년에 설립됐다. 창작, 연주, 교육, 국제교류, 출판 등 한국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관하는 행사로는 대한민국국제음악제와 대한민국작곡상, 서울창작음악제, 국악관현악축제, 해외파견공쿠르, 학생음협공쿠르, 한·중국제합창제 등이 있다.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있고 120여 개의 국내·외 지회, 지부와 90여개의 산하단체를 두는 등 명실공히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음악인들의 집결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축제를 지원한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경영자문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락음악단, 영재국악학, 국악캠프 등 국악 장르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악의 대중적 저변 확대와 장기적인 수요를 위해 국악 작품을 발굴·선정하고 우수한 국악 연주자들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국악 분야를 꾸준히 후원하는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후원을 바탕으로 전통국악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사업, 국악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국음악협회의 행보는 전통계승의 중요성과 함께 모범적 결연 사례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제주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세미나 현장

지난 9월30일 전국 레미콘 기업 대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대표 넘버인 '지금 이 순간이 울려 퍼졌다. 제주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끝나자 현장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개최한 '2019 레미콘 CEO 경영혁신 세미나'의 문화 접대 현장이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에 첫 번째로 선정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대표이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올해 처음으로 문화 접대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메세나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캠페인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이 전시 및 공연 티켓 구매, 예술단체 초청 등을 활용한 문화접대를 할 경우 해당 접대비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트럼펫, 퍼커션, 키보드 등으로 구성된 제주팝스오케스트라의

단원 중 12명이 연주했는데, 유명한 뮤지컬 주제곡과 가곡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객과 함께 호흡했다. 세미나라는 행사 특성상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공연이 무르익고 귀에 익은 곡들이 연주되자 행사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흥겨워졌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경우 대리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활용하지는 못했는데 중소레미콘업계의 화합을 다지고 어려운 산업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 처음 이같은 공연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찾아 문화접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초과할 때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의 20%까지 비용으로 추가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특히, 대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이 큰 중소기업이 이용할 기회가 더 많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계도 상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2020년에도 '문화접대비 제도'의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4

‘2019 문화로 인사합시다’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A&B포럼 여수 예술현장 탐방

기업 메세나 실무자들의 정보 교류 모임인 'A&B포럼' 3분기 행사가 지난 9월 20일~21일 이틀간 '여수 문화탐방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12개 기업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여수의 대표 기업인 GS칼텍스의 예술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사례와 여수 지역의 문화적 지역재생 콘텐츠를 살펴보았다.

21만 평에 이르는 지역에 친환경 구조의 건축공법으로 지어진 복합문화공간인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이미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공공과 민간의 성공적인 예술협력 협력 사례는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예울마루의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장을 견학한 후 올해 5월에 문을 연 다도해를 품은 예술의 섬, 장도를 탐방했다. GS칼텍스와 시민, 예술가의 협력으로 채워가는 자연속 예술섬 장도에는 기존에 있던 다섯

가구의 집터에 신축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조각동, 회화동, 문예동 등), 채광 효과를 극대화한 약 409m²의 전시관, 예술작품과 함께 바다 경관 조망이 가능한 다도해정원과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고조된 여수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GS칼텍스재단의 지속적이고 진정성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밖에도 한화의 대표적인 여가문화 사업장인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설화를 콜라보레이션한 아쿠아 공연 콘텐츠를 관람하였고, 2년 연속 4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지역의 대표 예술축제인 <2019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국내외 미술작품을 도슨트와 함께 감상했다.



미술가 이불이 전하는 창의성 제14회 <메세나 CEO문화포럼> 성료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10월 23일 조선포에서 회원사 대표와 임원들의 조찬포럼인 '메세나 CEO문화포럼'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시대의 예술가 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세계를 누비는 설치미술가 이불 작가가 초대되어 해외에서 최근에 진행한 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품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과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 이사, 회원사 대표 및 임원, 실무자, 외부초청 인사 등이 참석했는데 대중에게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이불 작가에 대한 관심도를 입증하듯 기존 포럼보다 훨씬 많은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과연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의 작품은 역시나 창의성이 넘치고 대담하다"며 "그가 왜 세계가 원하는 작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회원사 실무자 가족 초청 <메세나 예술무대> 개최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의 메세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주기 위해 기획된 공연 관람 프로그램 <메세나 예술무대>가 지난 10월 19일 롯데콘서트홀과 대학로 컬처스페이스 앤유에서 열렸다. 총 3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해설이 있는 클래식 기획 공연인 '회원음악회'로 진행되었는데 장르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두 가지 공연으로 구분한 <메세나 예술무대>로 새롭게 선보였다.

정통 클래식 공연을 선호하는 실무자와 가족들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장이브 티보데의 생상스'를 관람했으며, 뮤지컬 장르를 선호하는 실무자들은 창작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각각 관람했다. 추후 클래식과 우리나라 창작뮤지컬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이번 <메세나 예술무대>는 회원사 실무자 가족들의 참여를 높이하고자 토요일에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뮤지컬 '김

종욱 찾기'를 관람한 종근당홀딩스 변무성 차장은 "평소 꼭 보고 싶었던 공연을 가족들과 함께 보게 되어 매우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평소 업무로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도 전시와 공연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이날의 감동을 전했다. ▼



위라벨 시대 기업과 예술의 변화와 메세나의 역할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위라벨 트렌드 확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로환경은 물론
여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문화예술의 행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할 때

지난 10월 29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의회 공동 주최로 '기업 근로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스테이지원 박진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우석 교수와 현대백화점 이해찬 차장, KT&G 제주본부 김범석 과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선희 전문위원, 세종문화회관 김태진 팀장이 참석해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 활성화와 민간, 정부, 예술계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 밖에도 기업관계자 및 문화예술 지원 기관, 예술 종사자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위라벨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고민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의 서우석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서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과 근로환경 변화를 설명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말했다.

서우석 교수는 이러한 근로환경 변화가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가시간이 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

또한 늘어나면서 경제적 안정을 갖춘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근로시간의 변화는 무엇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에서는 소위 90년생으로 분류되는 '신세대 직장인' 담론이 대두되었다. 젊은 직장인은 직장에서 물질적 욕구와 탈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고, 기업은 이들 세대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여가생활의 여위가 가능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사이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우석 교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유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지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발휘될 때"라면서, "기업, 지역, 그리고 메세나 협회 등의 매개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업, 문화예술을 기획하다

현대백화점과 KT&G의 메세나 사업에 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 콘텐츠팀의 이해찬 차장이 현대백화점의 문화경영 철학과 사례를 소개했다. 현대백화점은 국내 백화점 후발주자로서 문화경영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펼쳤는데, 특히 최근에는 워라벨 시대에 맞추어 직장인과 가족, 임직원, 일반 고객,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해찬 차장은 '문화'는 현대백화점다움을 정의하는 요소라면서, 태생부터 문화와 함께해온 문화기획자로서의 현대백화점을 자부했다.

KT&G 제주본부에서 CSR을 담당하고 있는 김범석 과장은 KT&G의 대표적 메세나 활동으로 '상상유니브'와 '상상펀드'를 소개했다. KT&G 제주본부의 성과라고 한다면 보다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범석 과장은 지역 기업이 메세나 활동을 전개하는 데 많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지역 메세나 협회가 이들 기업의 고민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지역을 잇는 네트워크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는 종합토론 시간으로 꾸며졌다. 사회를 맡은 박진학 대표, 앞서 발표를 진행한 서우석 교수, 이해찬 차장, 김범석 과장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조선희 전문위원과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김태진 팀장이 자리한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문화예술의 미래에 관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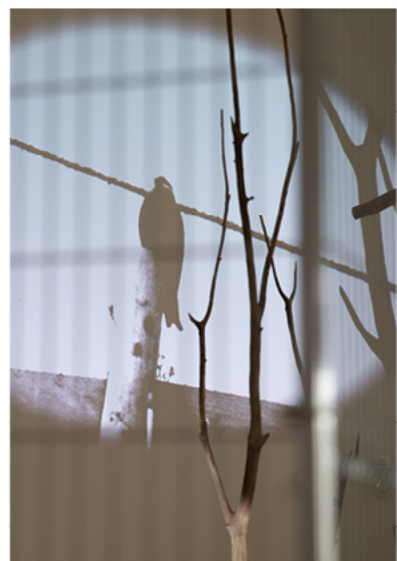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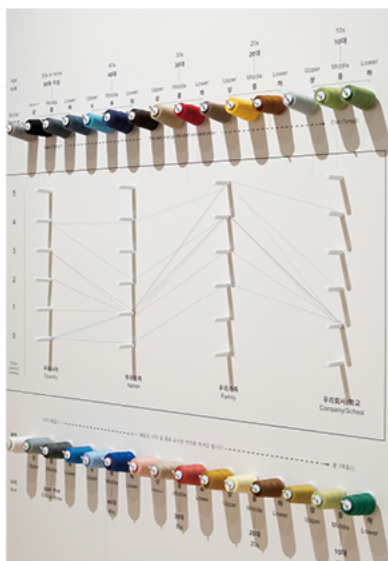
조선희 위원은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방 재정 분권을 언급하며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서 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진 팀장은 앞선 사례발표의 예시를 들어 "이제 기업은 단순히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 문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기관도 전시나 공연 등 전통적 형태의 문화예술에서 벗어나 도전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기관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기업과도 좋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해찬 차장과 김범석 과장은 각각 메세나 활동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목적과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지역 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든, 문화예술단체든, 지역이든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서우석 교수 역시 "메세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기업들을 대변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매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매개기관으로서 메세나 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젊은 예술가 세대의 변화를 언급하며, 새로운 일에 거리낌 없이 도전하고 사업적 인식이 높은 이들은 기업과 좋은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미래를 낙관했다. **IM**



현대에 고하는 4인 작가의 고백

올해의 작가상 2019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술상으로, 매년 동시대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과 담론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해왔다. 2019년도 올해의 작가상 심사위원단은 홍영인, 박혜수, 이주요, 김아영을 선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심사를 거쳐 이주요가 최종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10월부터 <올해의 작가상 2019> 전시를 개최하여 선정된 4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은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가 아닌 영상,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등 실험적인 형식과 주제의 작업에서 두각을 보인 작가들로, 이번 전시에서 이들의 신작 20여 점이 최초 공개된다. 작가들은 한국 사회가 내재한 개인과 사회에 관한 이슈,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참여 작가들이 직접 전시장 안에서 퍼포먼스와 토론, 설문, 공연, 온라인 중계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작업의 내용과 경계를 확장하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입체적인 현대미술 관람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영인은 이번 전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주의와 사회적 불평등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통방식에 주목, 인간과 다른 소통방식을 가진 동물들로서 ‘새’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박혜수의 작품은 ‘당신의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는 전문가와 진

행한 설문과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을 영상, 텍스트, 구조물, 다이어그램, 설치작업으로 시각화했다. 이 밖에도 ‘퍼펙트 패밀리’, ‘노 미들 그라운드(No Middle Ground)’ 등 가족의 해체, 양극화, 고독사 등 한국 사회의 현상과 문제들을 직시하는 다양한 작품을 보여준다. 이주요는 향후 자신이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미술관의 창고 시스템에 대한 견본모델로서 ‘러브 유어 디포(Love Your Depot)’를 선보인다. 작품창고와 랩, 콘텐츠 연구소로 구성되며, 전시장의 작품들은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는 동시에 현장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송출한다. 김아영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주와 도향, 초 국가성,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신작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랫폼’은 이전 작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의 후속작이다. 그는 이 영상작업에서 작가적 관심을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몽골에 집중하여 바위와 대지신앙으로 대표되는 몽골 설화와 접목시켰다. 이번 전시 외에도 후원 작가 및 최종 수상자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현대미술 다큐멘터리를 제작, SBS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일시 2019.10.12~2020.3.1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새해를 여는 거장의 음악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신년음악회

2020년 경자년 신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945년 설립된 고려교향악단을 원원으로 하여, 그간 도전의식과 개혁정신으로 한국 교향악단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음악계의 질적 도약과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후, 정명훈이 첫 음악감독으로 부임해 2015년까지 10년간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이끌었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4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또한, 흠 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감, 그리고 강렬하고 극적인 연주로 아시아와 유럽 무대를 누비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공연의 협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완벽주의 작곡가 브람스가 22세부터 43세까지, 21년간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한다. 이는 브람스의 4개 교향곡 중 첫 번째 작품으로, '베토벤 10번 교향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또 브루흐의 대표 작이자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도 선보인다.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두 작품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감동과 함께 신년의 설렘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장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최고의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무대, <2020 신년음악회>에서 그 거장의 음악을 확인할 수 있다.



· 일시 2020.1.4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December 12

SACCalliFe 2019 예술의전당 서예 축제 <서예, 그 새로운 탄생>

2019.11.9~12.29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11월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SACCalliFe 2019 예술의전당 서예 축제를 개최한다. 예술의전당은 이미 지난 1, 2회 SACCalliFe에서 한국 서예의 현주소와 미래를 확인하는 대규모 서예 전시를 마련한 바 있다. 2017년 <오늘의 한국서예>, 2018년 <한국 서예의 미래>에서 한국 서단의 대표 작가와 청년 작가를 조명했다면, 이번에는 서예 장르의 전시 기획자를 발굴하여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고자 한다. 전시기획안 공모에서 선정된 각기 다른 세 개의 전시를 통해 서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2019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19.12.14~12.25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매년 겨울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이 함께 선보이고 있는 연말 공연의 스테디셀러 <호두까기인형>이 올해에도 관객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볼로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며 러시아 발레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유리 그리고 로비치' 버전으로, <호두까기인형>의 버전 중 가장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구성을 자랑한다.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음악과 다채로운 춤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은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송년가족뮤지컬 <애니>

2019.12.14~12.29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송년 레퍼토리인 가족뮤지컬 <애니>가 올해도 관객들을 찾는다. 뮤지컬 <애니>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배경으로, 밝고 용감한 소녀 애니가 유명한 삶을 살지만 불행하기만 한 억만장자 워커스와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미국 브로드웨이 입성 후 40년간 사랑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2006년 서울시뮤지컬단이 초연하여 5회에 걸친 재공연 모두 높은 관객점유율을 달성했다. <애니>는 세대 간의 정서적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서, 아이들만의 장르로 여겨졌던 가족뮤지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III>

2019.12.17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합창단의 2019 <명작시리즈>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이 열린다. 서울시합창단의 명작시리즈는 작품성에 비해 국내 내연주가 흔하지 않은 작품을 개발·보급하고 익히 알려진 명곡은 서울시합창단



만의 강점을 더해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그 세 번째 무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전하는 예수 탄생의 대서사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선보인다.

베토벤의 시간 '17'20: 피아니스트 김다솔 독주회

2019.12.19 / 금호아트홀 연세



'피아노 앞의 거인'으로 불리며 무대 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며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김다솔. 그가 2017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다. 총 연주 시간만 무려 2

시간에 달하는 24, 9, 27, 6번과 더불어 23번 '열정'까지 다섯 개의 베토벤 소나타를 연이어 연주한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합창 교향곡

2019.12.19~12.2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합창 교향곡'으로 2019년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매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표 레퍼토리이다. 수석 객원 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가 지휘를 맡았다. 또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른 소프라노 황수미, 빈 슈타츠오퍼의 전속 가수 베이스 박종민 등의 성악가와 국내 최고의 합창단이 함께한다. 합창에 앞서 미국 출신 작곡가로 유럽 현대음악의 모든 경향을 작품에 담아내며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찰스 아이브스의 1906년 작 '대답 없는 질문'을 통해 관객들에게 '존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음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어린이 창작 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

2019.12.20~12.21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어린이 창작 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가 10주년을 맞았다. <왕자와 크리스마스>는 국내 유일 장수 어린이 창작 뮤지컬로, 2010년 초연하여 오라토리오,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을 걸쳐 발전했다. 올해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주연을 맡았다. 뮤지컬은 미국 감리교 파송 선교사인 미네르바 구타펠의 기록에 의한 영친왕의 실화를 소재로, 암울한 시대와 조선의 마지막 왕자의 고민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탄탄한 스토리로 감동과 재미는 물론 교육적 의미까지 더한다.

연말 시리즈 콘서트 <인디학개론>

2019.12.24~12.29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인디학개론>은 2019년 이미자, 최백호, 김동률, 적재 콘서트를 잇는 세종문화회관의 대중음악공연이다. 연말을 맞아 자신만의 색을 지닌 아티스트들의 '3인 3



색 연말' 단독 콘서트'를 콘셉트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는 마지막 무대가 될 예정이다.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십니까'의 <인디학개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12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특유의 사랑스럽고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크리스마스의 밤하늘을 수놓을 것이다. 12월 27일부터 28일 진행되는 두 번째 무대에서는 '한올'이 마음을 흔드는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12월 29일, 공연의 마지막은 성찬이 맡았다. 록과 포크를 기반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주목받고 있는 그는 이번 콘서트에 앞서 12월 15일 콘서트와 같은 제목의 신곡 '이렇게 좋은 겨울'을 발표한다.

2019 송년음악회: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연주회

2019.12.26 / 금호아트홀 연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젊은 거장들이 주고받는 뜨거운 호흡의 무대,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의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는 매년 새롭게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사랑 받는 한국 대표 앙상블 중 하나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멤버로서는 처음 소개되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 이정란,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슈베르트 현악 오중주와 타네예프의 피아노 오중주를 연주하며 2019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것이다.



January 01

2020 서울시합창단 카바코스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2020.1.9 / 롯데콘서트홀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로써, 베토벤과 관련한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또한 1년에 걸쳐 그의 교향악적인 유산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즌 개막 공연으로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택했다. 수석 객원 지휘자 티에리 피셔가 지휘를 맡았으며,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베토벤의 송고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이들이 전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의 장대한 평온을 만끽하길 바란다.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020.1.18~19 / 롯데콘서트홀

빈 소년 합창단이 특유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2020년 새해의 포문을 연다. 5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종교음악에서 팝, 재즈까지 장르를 넘



나드는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세계무대에 서고 있다. 1969년 처음 한국을 찾은 이후 140여 회에 달하는 내한 공연을 이어왔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마놀로 까니이 이끄는 브루크너팀이 내한해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파이프오르간과 어우러진 소년들의 맑고 청아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2020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운 독주회 '신년음악회'

2020.1.16 / 금호아트홀 연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을 사로잡은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사상 첫 여성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운이 2020년 금호아트홀의 여덟 번째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었다. 신년음악회는 그 시작이 되는 무대로, ARD 국제 콩쿠르 1위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벤킴과 함께 한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2020.1.23~2.27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다시 돌아온다.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는 1991년 드라마 방영 당시 국민드라마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직후까지 동아시아 격변기 10년을 배경으로, 세 남녀의 삶과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아냈다. 이미 지난 초연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밀도 있게 담아낸 스토리와 연출, 강렬하고 애절한 음악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재연에서는 기존의 작품성을 살리되, 대극장에 걸맞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더 높은 완성도를 만들어 냈다. 또 실력과 배우들의 대가 출연으로 명작의 깊은 감동과 여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베토벤의 시간 '1720: 앙상블블랭크 연주회'

2020.1.30 / 금호아트홀 연세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자 베토벤의 시간 '1720 시리즈'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특별한 해를 맞아 특별한 기획 공연들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실내악팀 '앙상블블랭크'다. 앙상블블랭크는 제네바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인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을 주축으로 결성되어, 새로운 형식의 무대와 파격적인 프로그램으로 현대음악은 어렵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이번 공연 역시 베토벤의 정신을 계승하는 현대음악의 위트 있는 무대를 통해 베토벤의 작품이 이후 클래식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베토벤의 철학과 정신을 고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금호라이징스타 시리즈: 비올리스트 김규리 독주회

2020.2.6 / 금호아트홀 연세



2016 요하네스 브람스 국제 콩쿠르,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 2019 베토벤 헨리데츠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하며 한국 차세대 비올리스트로 급부상한 김규리의 독주회가 열린다. 2020 금호라이징스타 시리즈의 첫 공연인 비올리스트 김규리의 독주회는 슈만, 브람스, 비외탕과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파데레프스키 국제 콩쿠르를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금호라이징스타 시리즈: 플루티스트 김유빈 독주회

2020.2.13 / 금호아트홀 연세

플루티스트 김유빈은 2013 고베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14 제네바 국제 콩쿠르 준우승, 2015 프라하 봄 국제 콩쿠르 우승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라이징 플루티스트로 급부상했다. 특히 2016년에는 만 19세 나이로 독일 명문 악단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최연소 플루트 수석으로 입단하며 주목받았다. 이번에 열리는 김유빈 독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이택기가 함께 해 더 풍부한 무대를 선사한다.



2020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2020.2.14~2.15 / 롯데콘서트홀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 구스타프 말러의 부활 교향곡은 베토벤 교향곡 9번으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프로이트가 살던 시대에 작곡됐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해 작곡되었기 때문에 매우 압도적이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의 취임 연주회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인터내셔널 마스터스 시리즈: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리프시츠, 알렉세이 볼로딘 듀오 연주회

2020.2.20 / 금호아트홀 연세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랑하는 두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리프시츠와 알렉세이 볼로딘 듀오 연주회가 열린다. 무대를 완벽하게 채우는 존재감과 넘볼 수 없는 음악세계를 가진 두 연주자의 협업은 시작 전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높였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만들어진 메트너,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작품을 통해 러시아 레퍼토리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2020 서울시향 모차르트 교향곡 제36번 린츠

2020.2.21 / 예술의전당



도쿄 신국립극장 오페라 부문 예술감독인 가즈시 오노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선다. 뛰어난 상상력으로 진정한 한국 현대음악을 구현한 박영희 작곡의 '고운 남'으로 시작해 햇살 가득한 모차르트의 '린츠 교향곡'으로 이어지며, 라벨이 편곡한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전람회의 그림'은 옛 러시아의 영혼을 담은 얼마 남지 않은 작품들 중 하나로 가즈시 오노 또한 이 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2020 오르간 오딧세이

2020.2.25 / 롯데콘서트홀

천상의 소리를 담은 파이프오르간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하모니 어드벤처, 오르간 오딧세이가 2020년에도 관객들을 찾는다. 오르간은 거대한 외관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악기로, 오케스트라에 비견되는 다양한 음색을 구현하며 '악기의 제왕'이란 극찬을 받는다. 오르간 오딧세이는 오르간 연주는 물론 해설을 통해 악기의 역사와 구조, 그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공연으로 지난 2017년 시작된 이래 매년 진행되고 있다. 2월 열리는 2020년 첫 오르간 오딧세이에서는 '오르간 오르페우스'를 주제로 오르간과 바이올린의 앙상블을 선보인다.



세 도시 이야기: 첼로-첼리스트 김두민,

피아니스트 김태형 듀오 연주회

2020.2.27 / 금호아트홀 연세



첼리스트 김두민과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뜨겁고도 차가운 러시아 선율로 찾아온다. 2017년 <베토벤의 시간 '1720'>을 통해 국내 음악계에 조용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두 사람은 3년째 호흡을 맞추며 듀오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듀오는 세 도시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스트라빈스키와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를 구성한 짝은 페이소스의 러시아 대표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2020 서울시향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2020.2.2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비에트 정부는 쇼스타코비치의 10번 교향곡을 '낙천적인 비극'이라 불렀다. 곡은 어둡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은밀한 메시지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교향곡 중 하나라는 점이다. 대만의 지휘자 텅취 추앙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비밀을 탐색한다. 이뿐만 아니라 텅취 추앙의 모국인 대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곡가이자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천리의 작품과 한국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연주하는 클라주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감상할 수 있다.



회장사

일신방직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주)노루홀딩스

동성코퍼레이션

백산엔지니어링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삼양홀딩스

설원량문화재단

세아제강

(주)유니드

종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운-해태제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풍산그룹

한미약품

한화갤러리아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

이사사

고려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두산

디자인하우스

사라

(주)신세계

이건홀딩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성자동차

LG 연암문화재단

SK SUP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 위원회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강원랜드

경남스틸

공간그룹

광주요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금호폴리켄

금호파엔비화학

금호홀딩스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나라삼양감숙기

나라통상(주)

(주)나우피플

남이성교육문화그룹(주)

네이버문화재단

네이처스웨일리코리아

(주)노루비케미칼

(주)노루오토윙

(주)노루페인트

녹십자

뉴서울 컨트리클럽

뉴스킨 코리아(주)

뉴욕제과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주)다진

대림산업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주)대창스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제분

(주)대한항공

더페이스샵코리아

도시출판 '삶과 꿈'

(주)돌실나이

동서식품

동아제약

동아출판

동일 FnG(주)

두산건설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로알&컴퍼니(주)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르노삼성자동차

(주)카케팅큐레이터 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모나미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월

법률사무소 C&B

베이글카페

보령제약(주)

본아이에프(주)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주)브레드가든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 SDI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주)삼화에프앤에프

삼양커뮤니케이션즈

(계)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기획

서울옥션

(주)성도GL

(주)세원특수금속

세일 ENS

세화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재)송원문화재단

(주)스파크인터내셔널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IDT(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항공

(주)아이피케이

(주)에스원

영앤임성 주식회사

오렌지라이프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올림푸스한국(주)

와이에스케이미디어

우리종합금융

(주)우진

우진건설(주)

원마운트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원포시스(주)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이상일문화재단

인산죽염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재단법인 송강재단

제우인베스트먼트(주)

제일기획

조선평화

종이문화재단

자알아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자연하아링코리아

창림출판

컨슈머타임스

케이옥션

(주)코리아 투모로우

(주)코스모스악기

코카콜라음료

(주)크레디아프로젝트

(주)클라우즈나인마케팅

태영건설

퍼시스

페르페티 반 델 아시아퍼시픽

포스코 ICT

필룩스

(재)한국FPSB

한국 GM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무역협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암웨이

한국전력공사

한맥도시개발

한미회계법인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주)한진

(주)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주)호텔롯데

(주)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힐라코리아

휴맥스

BMW 코리아(주)

BNK 경남은행

BNK 부산은행

CJ 문화재단

DI 통일

GA KOREA Outlet & Resort

GS 칼텍스 예울마루

(주)HK

HSD 엔진

IBK 기업은행

(재)KBS 교향악단

KB 국민은행

KDB 생명

KEB 하나은행

KT

KT&G

LG 생활건강

LG 전자

LG 화학

LH

OCI

POSCO

SK 건설

SK 네트웍스

SK 에너지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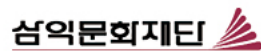
SK 텔레콤

SK 해운

SM 삼한기업

TCC스틸

함께하는 메세나
회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8.26 ~ 2019.11.27)



화정 박물관

